Información 한Gua 한 과 정 보

2020년 12월 21일 (11.7) 월요일

한과정보

코로나 19 현황

총확진	日확진	사망
132,765	167	4,656

기준환율 : ₩ 1,103.50 송금시 : ₩ 1,092.70 팔때 : Q 7.64 살때: Q 7.94

대사관 : 2382-4051~55 이메일 : embcor.gt@mofa.go.kr 대사관긴급전화 : 3368-9333 한인회 : 2445-6461

코로나로 줄었던 차량들 크리스마스 다가오며 다시 증가

올 한해 코로나로 인해 도로위를 달리는 차량들이 줄어들었으나 크리스마스 전 마지막 주말을 맞은 지난 19일은 길 위로 쏟아져 나온 차들로 인해 시내 곳곳에 교통체증이 발생했다.



토요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선물을 사러 쇼핑몰과 상점으로 나온 과테말라 시민들로 과테말라 주요 도로인 Calle Marti, Roosevelt, Aguilar Batres, Carretera Salvador 도로가 모두 혼잡을 빚었다.

현재 과테말라시와 인근지역에는 45개 쇼핑몰과, 38개 시장을 비롯해 소나 1에서는 Plaza Amate와

<6페이지에서 계속>







그린 . 해피 마트

5525-1200, 2433-9651 /1 calle 32-51 Z.7 col. Toledo
4025-2266, 5893-8565, 2334-7344, 2362-3475
그린2호점 : Bulevar Liberacion 4-11 Z.9 Local #1, Plaza Asadis
그린3호점 : 12calle 3-40 zona 14 (비발디 아파트 바로 옆)

전품목 20% SALE

12월 08일자
한국 일반 콘테이너
입하와 동시에
"세일"을 진행합니다.



매년 실시되는 "연말세일!!"
신선한 제품으로 실시하는 "세일!!"
고객분들이 먼저 알고 계십니다.



세일이라고 절대 재고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단 박스단가나 도매품목은 세일에서 제외됩니다.)

샤인코리아

한국 슈퍼 마켓

교민과 함께하며 신선한 제품과 저렴한 금액으로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J 제일제당 오뚜기 HITEJINRO paldo

12월 12일 미국
12월 1일 한국
콘테이너 입하

미국 일반 컨테이너 각종 생활용품들

이천 햅쌀, 빙그레 바나나우유

편안한 게임용 의자(RED,GREEN, GRAY)

커피메이커-원두그라이딩(110v),

대용량 에어프라이기(110v),

쿠쿠온풍기(110v) 각종 커피포트(110v)

새송이,팽이버섯,생마늘쫑, 우엉,서울우유 및 매일 우유, 연세 바나나우유
진로이즈백,이슬톡톡,테라,아사히,칭다오,카스 맥주,고려은단 비타민 C
라면류,과자류,음료,주류, 각종 생활용품,기타 일반 제품 및 신제품 다량 입하
KF94 한국마스크, 살균 손소독 티슈 및 소독제



▶연말 선물용 카나스타, 상품권, 케익, 롤케익 주문받습니다.
▶2021년도 탁상용 달력 나누어 드립니다.

※할인품목 - 시린메드 치약 3개 Q130, 다용도채칼 Q30, 뽀로로 음료 24입 Q120
※선물용품 - 비누, 샴푸, 바디용품 세트, 유산균(분말,캡슐), 크릴오일, 콜라겐, 비타민C 홍삼엑기스,홍삼환,홍삼에브리타임, 선물용 건강식품:칡즙,여주즙,야관문즙&주,구기자즙

Tel : 2296-6152 / 2296-6153 / 2439-7176 / 2 Calle 34-15 Zona 7
영업시간 : 오전 8시30분 ~ 오후 8시 / 시내 전지역 배달 / 신용카드 사용 가능

샤인 빵집

한국 베이커리

주문 예약 전화 : 5701-4323, 2296-6152~3
한국 제과 제빵 종류는 뭐~든지 예약 전화 주세요.



고구마, 녹차, 모카, 과일생크림,
초코케익, 롤케익
아침 10시부터 갓구은 빵이 나옵니다.



INK PAIS
잉크빠이스

잉크빠이스
복사기 임대 및
판매 개시!!



◆ 교민 여러분을 위한 칼라 잉크 프린터기 구입시 TIP!

프린터기 구입 모델은 엡손 L300 이상 (캐논보다 포멧 가격이 저렴하고 까르뚜쵸를 교환하지 않습니다.) 구입시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포장 안에 잉크병은 절대 버리시면 안됩니다.)

또한 자사 잉크는 타업체보다 엄청 저렴합니다.

▶ 타업체 70ml Q99 ▶ 잉크빠이스 325 ml Q100



CCTV 판매 실시



컴퓨터 조립 및 프로그램 판매

- 문의전화 -
2439-3692
5529-4481

젯트 여행사

Instituto Guatemalteco de Turismo 관광청 승인 여행사

INGUAT

◇항공◇

1. AEROMEXICO 주 2회 운항
   - 과테 ~ 인천 : 목.토
   - 인천 ~ 과테 : 월.토
   - 과테-멕시코 : 1일 2회 운항



2. UNITED AIRLINES
   - 과테 ~ L.A직항 : 월.화.목.토

3. AVIANCA AIRLINES
   - 과테 ~ L.A직항 : 화.수.금.토

4. DELTA AIR LINES
   - 과테 ~ L.A직항 : 화.수.금.토

◇관광◇

※ 과테말라 국내 및 주변 국가 년말여행
* TIKAL - 당일관광 $290
* TIKAL - 1박2일 호텔포함 $380

* 우리만 떠나는 단독여행
* 숙박과 취사시설 완벽한 방갈로식 콘도 단독 여행 안내 드립니다

※ 차량렌트 - 소형. 중형.대형



과테 입국시 72시간 내 PCR 검사지 의무화 (항원검사Prueba Antigeno허용) https://sre.gr/es/기록

13calle. 3-40 Local 41. 2do. Nivel. Edificio Atlantis Zona 10
E-mail : taeshim62@hotmail.com jetexpressgua@yahoo.com
Tel : (502) 2385-4646 직통전화 : (502) 2383-4324 HP : (502) 5867-5867

Jet Express Travel Agency & Tours

맥시코 No.1 영어·SAT·수학 전문 학원

sky ACADEMY

미국 명문 대학원생과 함께 하는 SAT 영어 ZOOM 특별반 모집



특별반 전담 이준규 선생님

- 韓 한영외고 졸업
- 美 Duke University 통계·경제 학과 졸업
- 美 UC 버클리 대학원 휴학 중
- IMF 근무 경험 및 SAT 강사 경력 多

SKY가 오랜 시간 신뢰받는 이유

첫번째,
과목별 최고의 강사진

- ✓ SAT영어 / 한국 수학 등 전과목 고려대학교 출신 강사진 구성
- ✓ 공과대학 / 수학과 출신 선생님과 함께 하는 특례 맞춤형 수학반 운영

두번째,
최고의 결과

- ✓ SAT 1500점 이상 고득점자 다수 배출
- ✓ 최근 5년 간 수학 수강생 98% 이상 AP Calculus BC 5점 (최고등급) 득점

세번째,
맞춤형 진학 컨설팅

- ✓ 개인별 맞춤형 특례입시 코칭 제공
- ✓ 고대, 연대, 성균관대 등 한국 상위권 대학 합격생 다수 배출

문의 SKYAcademy | skyacademy.mexico@gmail.com

과테말라 / 중남미 주요뉴스

6Calle와 6Avenida가 만나는 장소에서 크리스마스 바자회가 열리고 있다.

과테말라시의 Amilcar Montejo도로국장은 지난 토요일 하루 동안 60여만대의 차량이 쏟아져 나왔으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선 줄어든 차량대수 이지만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하면 여전히 많은 것이라고 밝혔다

Mixco시 Roger Escalante 도로국장도 17일 부터는 오후 3시~8시 기간동안 차량 통행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Mixco시내에 소재한 38개 쇼핑몰들로 인한 것으로 크리스마스가 있는 다음주에는 차량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12월 23일 이후에는 차량들이 사라지며 교통흐름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Amilcar Montejo도로국장도 지난 주말 하루 평균 주행차량은 60만 대 수준이었으나 크리스마스 직전인 21일부터 23일까지는 100만 대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급적 온라인이내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 사고는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 보다 줄었으나 하루 평균 8~12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코로나로 줄어들었던 주행차량이 다시 늘어나는 것은 비단 과테말라시만은 아니다.

지방 주요도시인 Quetzaltenango와 Escuintla, Chichicastenango 및 Quiche에서도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연말로 인해 음식재료 구입이나 선물 구입을 위해 외출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며 차량들이 늘어났으며 Chichicastenango에서는 경제 회생을 위한 'Chichicastenango 박람회'가 열리기도 했으나 당국에 의해 행사가 취소되기도 했다.

Prensa Lib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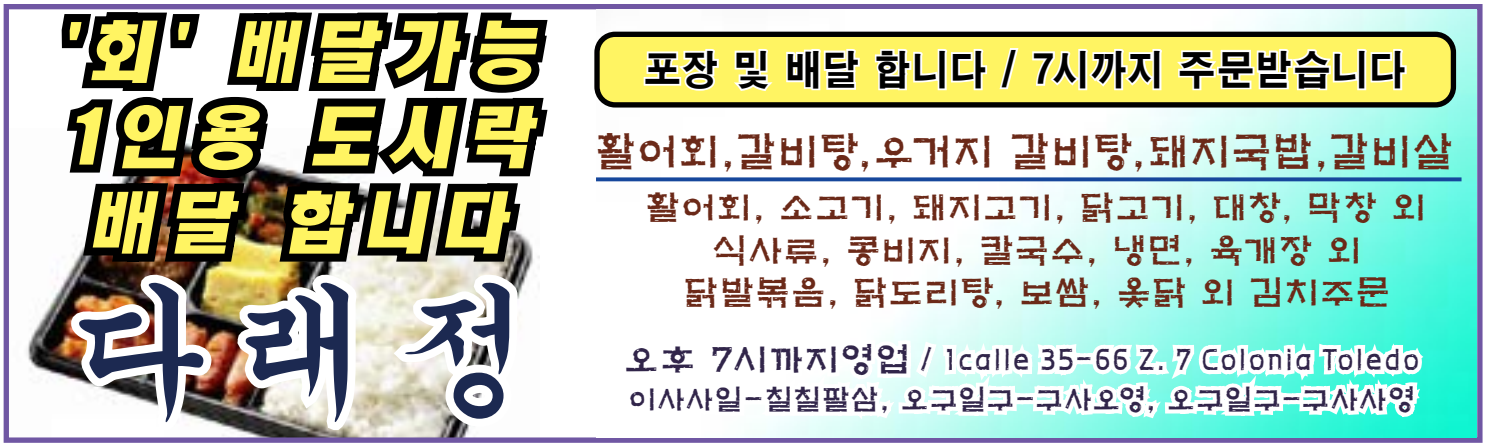
과테말라 입국전 코로나 검사 유효기간 72→96시간으로 확대

과테말라 입국을 위한 코로나 검사(RT-PCR이나 항체)의 유효기한이 기존 72시간에서 96시간으로 확대 되었다.

보건부는 12월 18일부터 항공이나 육로 및 해상을 통해 과테말라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해 오던 코로나 검사 유효기간을 확대 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지침은 보건부 홈페이지(https://www.mspas.gob.g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테말라에 도착하는 10세 이상의 내국인 및 외국인은 각 국가에서 공인된 시설에서 96시간 내에 발행된 RT-PCR검사나 항체검사 결과지를 제출해야 하며, 검사결과서를 소지 하지 않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내국인과 합법적인 거주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국가 격리시설로 이동해 검사를 받게 된다.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과테 시내
배달개시
Q300 이상

과 테 골

- 도시락 전문 -

낮 12시부터
오후6시까지
모든메뉴배달

♣ 보쌈, 족발
♣ 김밥, 김치볶음밥
♣ 오리로스. 훈제
♣ 생삽겹
♣ 양념통닭
♣ 후라이드통닭



활 어 회
다량 입하

각종 찌개 ♣
김치 판매 ♣
다양한 점심메뉴 ♣
영양탕(매주 화요일) ♣
닭,오리 백숙(오전예약) ♣
출장 뷔폐/돌잔치/회식 ♣

이사칠칠-이육삼팔 / 이칠칠오, 오삼영사-사일사오
46 calle 6-87 Z.12 Col.Montemaria 3 / 월~토 12시부터 영업

신성통상 니카라구아 소속 이스트모 법인
직원 채용 공지

***** 채 용 부 문 *****

1. 공장 생산관리 유 경험/남성 직원 1명(TARGET, GAP ORDER 생산관리)
   나이 : 25세~40세 (생산 관리 유 경험자)
   필수조건 : 스페인어 능통
2. 공장 생산업무 신입 사원 1명/남녀불문 (TARGET, GAP ORDER 생산관리)
   나이 : 30세 미만(오더 생산 관리 경험자 우대)
   필수조건 : 영어/스페인어/컴퓨터 능통

* 입사시점 : 2021년 1월
* 처우 : 급료 외 기숙사 제공(가족 동반시 주택보조 지원) 차량 유류비, 통신비 등
* 연락처 : 00-505-8806-3348 / yanghj@ssts.ca.com

마하다스 상가 바디프렌드 매장 내 안쪽 / 8calle 28-00 Z.11 Plaza Las Majadas #24 / ☎ 삼공이구-삼육팔사

The nail 손.발 케어 및 내성발톱 관리 전문

속 눈썹 연장 / 펌
네일아트 연장 / 아트
패디큐어 / 각질케어
내성발톱 / 무좀발톱 관리
무좀 관련 제품 판매
네일·눈썹 영양제 판매

◈ 발톱 교정 관리 ◈



◈ 발톱 무좀 관리 ◈



그러나 거주비자가 없는 외국인은 입국이 불허된다.

Prensa Libre

과테말라 최초 건전지 제조공장 RAYOVAC 폐쇄

1961년 'Daralux'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1962년 Rayovac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금까지 건전지를 생산해 온 과테말라 최초 밧데리 제조공장이 지난 18일 문을 닫았다.

평소처럼 공장에 도착한 노동자들은 공장입구에 걸린 공장폐쇄 현수막에 막혀 일터에 들어가지 못 했다.

Rayovac은 지난 12월 18일 사전공지 없이 전격적으로 공장 폐쇄를 단행한 가운데, 폐쇄한 과테말라 공장의 일감은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의 공장에서 흡수하며, 과테말라내 보관 및 유통 사업은 외부업체에 맡긴다고 밝혔다.

공장입구에 걸린 현수막에는 "공장 폐쇄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일자리를 잃은 직원에게는 별도의 임금이 지불된다. 지금까지 보여준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적혀 있었다.

현재 회사는 경비원만이 근무하고 있으며, 경비원들은 공장내에 아무도 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Daralux'로 시작한 이 회사는 설립초기 Arzú가족과 Luis de Ojeda가 공동으로 설립했으나, 다음해 곧바로 Rayovac Corporation에 지분의 75%를 팔며 사명도 Rayovac으로 변경해 59년 동안 과테말라에서 다양한 건전지를 생산·판매해 왔다.

Soy502

크리스마스와 연말 통행금지 재시행? '가짜뉴스'

보건부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휴기간 통행금지가 다시 시행될 것이라는 소문은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계속 확산되는 통행금지 재시행 소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며 이런 소문이 돌 때마다 과테말라 정부는 '가짜뉴스'라고 밝혀 왔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의 소셜 네트워크 상에는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며 Amelia Flores 보건부 장관이 알레한드로 지아마떼이 대통령에게 '통행금지'를 요청했다"는 내용과 "대통령에게 연말 휴무기간 '통행금지'를 요청한 Amelia Flores 보건부 장관에게 박수를 보낸다'는 내용이 돌고 있다.

그러나 Julia Barrera 보건부 대변인은 '통행금지' 관련 내용은 모두 허위이며, 보건부는 지금까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손 자주 씻기 및 마스크 쓰기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Soy502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RESTAURANTE HAN GUN GWAN

고기 전문 식당

한국관



▶ "냉면 전문식당 그 외 다양한 메뉴 / 연중무휴
▶ 넉넉한 주차공간 보유 (대리운전 콜 서비스)

이사삼구-오구이칠, 사육이영-이칠오구 / 2a. calle 33-14 Z.7 calz. mateo flores

박 상 민
healthcare clinic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
박 상 민 클리닉



응급 진료
왕진/특진

2020-2021 독감 예방 접종 실시!

예방접종은 정직함으로 신뢰를 드리는
박상민 클리닉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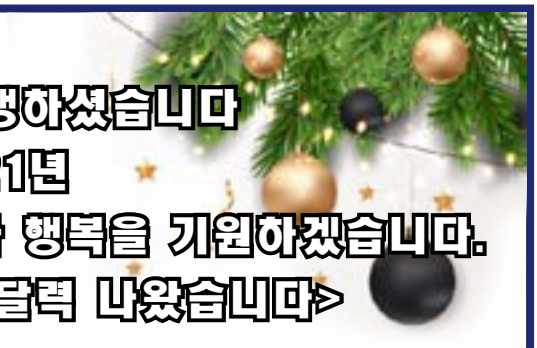
접종이름 : VAXIGRIP TETRA
제 조 사 : SANOFI PASTEUR
생 산 국 : 프랑스
TYPE : 복반구 독감4가 백신
A/GUANGDONG MAONAN (H1N1)
A/HONG KONG (H3N2)
B/WASHINGTON02/2019
B/PHUKET/3073/2013

접종비용 Q.285

사전 연락/예약 후
접종가능
단체 방문 접종 가능

▶전화 : 2439-8225, 4004-6267 ▶ 카드결제가능 ▶Waze/Google map/Uber : '박상민 클리닉' 검색

샬롬여행사
(SHALOM TOUR)
32 Ave 1-28 Z.7 Utatlan(농원 2층 위치)
2439-7650, 2439-7706, 5990-7197
shalomlim@hotmail.com, shalomlimgua@hanmail.net



※ 과테 입국시 : 코로나 음성 (72시간내) 확인서와 입국시 앱에 등록해야 합니다. https://sre.gt/es/

크리스마스의 기적 코로나19 이겨낸 108세 페루 할머니

번번이 병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자식들은 끝까지 엄마를 포기하지 않았고, 엄마는 기적적인 코로나 완치로 화답했다.

입원 1주일 만에 코로나19를 거뜬히 이겨낸 초고령 페루 할머니 페트로닐라 카르데나스의 이야기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카르데나스 할머니는 16일(이하 현지시간) 리마의 임시격리치료소에서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박수갈채 속에 퇴원했다. 할머니의 막내딸 멜리사 콘도리는 "다시는 엄마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감격의 눈물을 훔쳤다.

1912년생으로 올해 만 108세인 카르데나스 할머니에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현한 건 12월 첫 주말 직후였다. 몸이 퉁퉁 붓더니 호흡곤란이 나타났다.

자식들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엄마를 즉시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발길을 돌려야 했다. 코로나19가 의심되지만 남은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이 단 한 개도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막내딸 콘도리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두 곳이나 방문했지만 병상이 없어 입원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낙심한 자식들에게 실낱같은 희망을 준 건 "팬아메리칸게임 조직위원회가 설치한 임시격리치료소를 찾아가 보라"고 권유한 이웃이었다. 2019년 팬아메리칸게임을 개최한 페루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자 당시의 매뉴얼을 재가동, 리마에 6개 임시격리치료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카르데나스 할머니는 이렇게 찾아간 임시격리치료소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 지난 9일의 일이다.

임시격리치료소는 즉각 할머니를 입원시키고 치료에 들어갔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고령의 할머니에게 각별한 정성을 쏟으면서 입원 당일 엄마와의 영원한 이별이 될지 모른다는 안타까움에 쉽게 발걸음을 돌리지 못했던 자식들에게 하루도 빠지 않고 핸드폰으로 할머니의 상태를 알려줬다.

이런 정성 덕분이었을까. 할머니는 입원 1주일 만인 16일 완치 판정을 받고 임시격리치료소를 나왔다.

자식들은 "크리스마스를 엄마와 함께 보낼 수 있게 된 건 기적"이라면서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 "고 눈물을 흘렸다. 페루에서 100살대 고위험군 확진자가 코로나를 이겨낸 건 벌써 두 번째다.

앞서 지난 8월 페루 루리간초에선 103세 할머니 클라우디아가 입원 15일 만에 코로나를 극복하고 완치 판정을 받았다.

한편 페루에선 20일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 98만9000명이 발생했다. 93만 명이 완치됐고 3만6585명이 사망했다.

한과정보 : 박성진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온세요달 전문점

오후 6시까지
주문받습니다.

해 물 탕	닭 갈 비	김 밥
해 물 찜	닭도리탕	떡 볶 이
코다리찜	돼지갈비(양념)	돈 까 스
소갈비찜	LA 갈비(양념)	닭순살 튀김
돼지갈비찜	오징어볶음+사리	아로스믹스또
묵은지고등어찜	골뱅이무침+쫄면	모듬스시+초밥
묵은지돼지갈비찜	제 육 덮 밥	치즈김치볶음밥
해물샤브샤브	오징어덮밥	
곱창전골	불고기덮밥	보쌈(2시간전예약)
	우거지갈비탕	※ 각종 김치판매





※ 회사도시락 주문받습니다. ※ 배추김치, 알타리, 동치미 판매 ※ 일요일 쉽니다.

5194-9428 (배달만 합니다) 24calle 8-80 Z.11 mariscal

JUN 스크린 골프

스크린에 가면

노래방도 있고
골프도 치고
음식도 먹고
술 한잔도 하고

짱!
즐거워요

오시기전 예약 필수입니다..

Cel. 4218-7400 Tel.2233-7435 2calle 32-77 Ofibodegas San Mateo Bodega #1

사 설

한계 드러난 2.5단계 유지, '고통의 시간' 만 길어진다 (한겨레신문)

정부가 지난 8일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로 올린 지 열흘 넘게 지났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기는커녕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2.5단계로는 역부족이라는 게 점점 분명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3단계 격상'을 주저하고 있다.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097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5일 연속 1천명을 넘은 것이며, 지난 1월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최근 일주일(13~19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949명으로, 이 추세가 21일에도 이어진다면 3단계 격상 기준(800~1000명)의 상한선마저 넘게 된다. 정부는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선제적 익명검사를 실시해 당분간 확진자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확진자 수 증가라는 부담을 무릅쓰고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감염자를 찾아내는 건 잘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는 그만큼 숨어 있는 감염자들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더 강도 높은 방역 대책으로 각종 모임과 만남 등 접촉을 줄이지 못하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현재 '감염 재생산 지수'를 1.2~1.3 정도로 본다. 이 수준을 낮추지 못하면 3~4주 뒤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1500~2000명에 이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방역망의 허술한 관리도 드러나고 있다. 수용자 18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동부구치소는 첫 확진자가 지난 14일 발생했는데 당시엔 밀접접촉자만 진단검사를 하고 수용자 전수조사는 나흘이 지난 18일에야 이뤄졌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병상 부족 사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기준으로 위중증 환자가 당장 입원할 수 있는 치료 병상이 전국 575개 중 38개만 남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은 서울 0개, 경기 2개, 인천 1개 등 이미 한계 상황에 봉착했다. 이런 가운데 위중증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집에서 입원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국민들께서 3단계가 어떤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보시고 그것을 인지하고 동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할 3단계 격상을 국민들에게 미루는 얘기로 들린다.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지 않고 확산세를 꺾을 수 있다면 누가 3단계 격상을 원하겠는가. 하지만 여러 지표들이 2.5단계를 계속 유지하면 확산세를 잡지 못하고 '고통의 시간'만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고통을 '짧고 굵게' 끝낸다는 각오로 3단계 격상을 결단하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 중환자 치료용 병상 확보를 위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 민간병원들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극 동참해야 한다. 백신 접종이 시작될 때까지는 감염 확산을 막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정부, 의료계, 국민 모두 비상한 각오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무리한 자사고 죽이기에 제동 건 법원 판결 (동아일보)

지난해 자율형사립고 지정이 취소된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18일 승소했다. 부산지법 행정2부는 "부산시교육청이 해운대고와 협의 없이 신설하거나 변경한 평가 기준과 지표는 해운대고에 현저하게 불리한 것"이라며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전국의 고교 10곳이 제기한 소송 가운데 나온 첫 판결인데 교육당국의 무리한 지정 취소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있다.

교육부와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주도한 자사고 무더기 지정 취소는 평가 기준부터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5년 전 평가에서 60점이던 재지정 통과 기준 점수를 70점으로 10점이나 한번에 올리고, 자사고에 불리한 교육청의 재량평가 지표 점수 등을 늘린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지만 교육당국은 절차를 강행했다. 부산시교육청도 재지정 기준 점수를 10점 높이고 지적사항 최대 감점 기준을 3점에서 12점으로 4배나 올리는 평가 기준 변경을 시행하면서도 해운대고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았다가 패소했다. 해운대고는 커트라인(70점)에 미달하는 54.5점을 받아 지정이 취소됐는데 학교 측에 불리하게 변경된 평가 지표가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면 최소한 63.5점을 받아 변경 전 기준 점수 60점을 충족했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아직 2심과 최종심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번 판결은 교육당국의 잘못된 결정을 사법부가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작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고무줄 잣대 논란으로,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죽이기'였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까지 개정해 2025년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일괄 폐지까지 밀어붙였다. 6월에는 서울시교육청이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까지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시켰다.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교육당국은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혼란과 갈등만 부채질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라 이 프

'여성 눈물'에 남성 마음 약해지는 과학적 이유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는 말이 있다. 실제 남성 중에는 여성이 울면 당황스러워서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왜 그럴까?

여자의 눈물에 든 '페로몬' 성분 때문에 남성의 마음이 약해질 수 있다. 이 페로몬에는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유화감정 물질이 있는데, 눈물을 많이 흘릴수록 짙어진다. 남성은 후각을 통해 눈물 속 페로몬을 받아들여 유화감정을 갖게 된다. 실제 이스라엘 바이츠만 과학 연구소에서 여성의 눈물이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는데, 진짜 눈물과 가짜 눈물을 남성의 코 밑에 각각 붙였더니 진짜 눈물을 접한 남성들의 심장박동수와 호흡이 안정됐다. 연구팀은 여성의 눈물에 남성의 흥분과 공격성을 낮추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분석했다.

울고 난 뒤 코가 막혀서 나는 일명 '코맹맹이 소리'도 마음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 울면 눈물의 일부가 콧속으로 흘러 들어간다. 코를 이루는 뼈(비갑개) 사이로 눈물로 차서 목소리가 변하게 된다. 코맹맹이 소리는 일종의 '원시음'으로, 이 소리를 들으면 원시적인 감정이 자극돼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고가 일시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샤워타올 언제 바꿨더라?" 올바른 욕실용품 사용법 5가지

욕실은 높은 습도로 인해 세균 번식이 쉽게 일어나는 공간이다. 물이 직접적으로 닿는 욕실용품들 역시 세균에 노출돼 있지만, 위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세균이 번식한 욕실용품을 피부나 치아 등에 사용할 경우 피부질환을 포함한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깨끗한 욕실용품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자.

샤워타올-2개월에 한 번씩 교체

샤워타올은 최소 2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한다. 샤워를 마치고 나면 샤워타올에 피부 각질이 남아있는데, 각질이 세균의 영양분 역할을 하며 번식을 돕는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 등 동거인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 샤워타올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함께 사용하면 앓고 있는 피부질환을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샤워 후에는 베란다와 같이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샤워타올을 말려주도록 한다.

수건-냄새나면 즉시 세탁, 3회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수건 역시 몸의 물기를 닦을 때 각질이 함께 닦이면서 세균을 번식시킨다. 특히 젖은 수건에는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용한 수건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널고, 3회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수건에서 냄새가 난다면, 이미 세균이 증식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세탁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 1년 이상 사용한 수건은 새 수건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칫솔-마모된 칫솔모는 치아 손상의 주요 원인

칫솔은 입안에 넣어 사용하는 만큼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칫솔을 제때 교체하지 않고 칫솔모가 마모될 때까지 칫솔을 사용할 경우 치아를 손상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바이어스작업
♣ BIAS(랍빠감,니트/우븐) 다대 및 바이어스 요꼬 커팅
♣ 스파게티 작업합니다.
♣ 랍빠 및 애리가다, 굿찌가다, 후다등 "패턴포머 전문제작"
♣ 각종 ATTACHMENT 인타, 오바, 삼봉, 샤링

랍빠전문
니트 및 우븐 핀탁랍빠
품질 보증, 남기 엄수
담당 : 박상봉 5526-0630
Fabrica empresarial montaña
km 18.5 carretera san juan sac
Aldea naranjito Z.6 de mixco
A-41-68 bodega no.2

칫솔 교체주기는 최대 3개월이 좋다. 칫솔모가 손상돼 잇몸이 쓸린다면 3개월이 안 됐어도 교체해야 한다. 종종 세균 제거를 위해 칫솔을 끓는 물에 삶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칫솔 모양 변형뿐 아니라 구강 건강에도 좋지 않은 행동이다.

면도기-오래된 면도날 피부에 상처 줄 수 있어

면도날을 교체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할 경우 피부에 상처를 내고 세균이 침투할 수 있다. 따라서 2주에 한 번 면도날을 교체하고, 면도기를 사용한 후에는 깨끗이 세척 후 전용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면도기를 보관할 때는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두는 것이 좋다.

샤워기 헤드-6개월에 한 번씩 청소, 2년에 한 번 교체

샤워기 헤드는 고장이 없는 용품인 만큼 교체 없이 수년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샤워기 헤드 역시 오래 사용 시 세균 번식 등으로 인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2년에 한 번 교체하고, 6개월에 한 번은 샤워기 내 살수판을 청소하는 것이 좋다.

피부학자가 말하는 '엉덩이 여드름'에 대한 3가지

여드름은 얼굴에만 생기는 게 아니다. 목, 가슴, 등에도 생기고, 엉덩이에도 난다.

특히 엉덩이에 여드름이 생기면 앉아있을 때 불편하고, 손으로 건드리기에 민망한 부위라는 점에서 성가시게 된다.

그렇다면 왜 엉덩이에 여드름이 생기는 걸까?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미국 피부과 전문의인 레이첼 나자리안 박사가 생활지 헬로우기글즈를 통해 엉덩이 여드름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소개했다.

◆ 조이거나 땀이 차는 옷이 주요 원인= 나자리안 박사에 의하면 엉덩이 여드름은 주로 꽉 조이는 옷이나 땀이 잘 차는 옷을 입을 때 생기는 경향이 있다. 엉덩이 여드름은 우리 몸에 대량 서식하는 피부 표면의 박테리아가 원인이 돼 발생하는데, 엉덩이 부위에 땀이 많이 나거나 타이트한 옷을 입고 벗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마찰이 이를 악화시킨다. 땀과 마찰은 엉덩이 부위의 모낭을 자극해 여드름과 비슷한 모낭염을 유도한다는 것.

특히 유분이 많은 피부 타입을 가졌다면 이미 피부 트러블에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특히 더 엉덩이에 자극을 가할 수 있는 의상을 피하는 것이 좋다.

◆ 엉덩이 여드름 완화하려면 각질 제거 필요= 알파히드록시산, 과산화벤조일 성분 등이 엉덩이 여드름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살균 효과와 각질 용해 과정을 통해 엉덩이 여드름을 줄여준다. 알파히드록시산이 화학적 박피 기능을 한다면, 베타히드록시산은 유분기 생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두 성분 모두 도움이 된다. 레티노이드도 피부 표면을 정리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단 각질 제거는 자주 하면 피부가 지나치게 건조해질 우려가 있으니 일주일에 한두 번 이하로 제한하고 박박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살살 문질러야 한다. 스크럽은 죽은 각질이 쌓이지 않도록 한다는 생각 정도로 조심스럽게 문지르면 된다.

또한, 여드름을 짠다거나 세게 긁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는 해당 부위를 자극해 염증을 악화시키고 향후 흉터가 남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상처나 색소침착 남지 않게 하기= 여드름이 생겼던 부위가 어둡게 흔적이 남았다면 염증 잔여물 때문일 수 있다. 피부 조직을 보수할 수 있는 알파히드록시산, 베타히드록시산 등의 성분이 이 같은 색소침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나자리안 박사의 설명이다.

국소적으로 항염증 기능을 하는 녹차 성분도 도움이 되고, 국부성 레티노이드류는 좀 더 깊은 손상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흔적이 보다 심각할 때는 피부과에서 전문의와 레이저 혹은 광선 치료 등에 대해 상담해보는 것이 좋다.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한인부동산

토지.아파트.주택.오피스.창고.상가/ 판매.분양.및 렌트
하나 김 CEL.5252-3431 (hanakim3431@gmail.com)

Zona 14 Casa Cañada
아파트 분양, 올해 완공





Zona 14
Santa Ines del Parque

·SANTA INES·
DEL PARQUE

아파트 분양 - 2021년 6월 완공



12월 출장 중 이오니
카톡 및 WhatApp
문의 및 연락 바랍니다.

명가 名家





한방오리백숙, 오리탕,
쟁반국수, 콩국수, 치즈까스,
맛있고 저렴한 스시롤
활어회, 복사시미
숙주와 차돌, 복찜, 아구찜,
염소탕, 삼합, 숯불돼지갈비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 휴무안내 -

12월24일~26일 휴무
12월 27일 영업
1월 1일 휴무

연중무휴 / 평일 9:00, 일요일 6:30 / 이이일구-구육육육, 이이삼사-육팔육삼, 오칠영삼-일칠삼사

강아지도 함께 먹을 수 있는 겨울 채소

과일이든, 채소든 제철에 먹어야 가장 맛있는 법이죠!

그래서 오늘은 강아지도 먹을 수 있는 겨울 채소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무

무에는 섬유질, 단백질, 비타민C 등 영양소가 풍부하고, 수분함유량도 많아 자연스럽게 수분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를 갉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치석 제거까지 할 수 있는 채소죠!

하지만 급여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의 무꽃은 구토, 설사, 경련 등의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제거 후 급여해주시길 바랍니다!

2. 브로콜리

사람에게도 좋은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체중 조절이 필요한 비만 강아지에게 도움이 되며, 비타민, 섬유소, 칼슘베타라코틴 등이 풍부하여 면역력 증가, 항암 해독작용, 변비에 좋은 채소입니다.

브로콜리를 주실 때는 살짝 데쳐서 잘게 썰어주시고, 급여량의 약 10% 이내로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피해주시길 바랍니다.

3. 당근

당근에도 비타민A, 카로티노이드, 인, 칼슘, 식이 섬유 등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눈 건강, 치석 제거, 피부 건강 그리고 털을 더 튼튼하고 윤기 있게 도와주는 착한 채소입니다.

4. 배추

배추는 노폐물을 배출하고, 변비, 암 예방,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급여하실 때는 하루에 1~2장 정도만 급여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을 떨어트리는 성분이 있어, 갑상선 질환이 있는 아이에는 피해주세요!

5. 시금치

시금치에는 비타민과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또한 엽산과 철이 풍부하여 빈혈이 있는 강아지에게 탁월하죠!

시금치는 특히 백내장 예방, 치아, 골격 형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노견에게 매우 좋습니다.

급여할 때는 살짝 데쳐서 잘게 썰거나 믹서기로 갈아서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아지에게 좋은 겨울철 채소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뭐든지 몸에 좋은 건 다 주고 싶지만, 절대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과도하게 먹으면 구토나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명 진 정 밀

미싱부속 판매
봉재용 소모품
마카지, 패턴지, 밑종이
마이깡 몰드 제작
각종 바늘 판매
재단기 부속 판매
패턴 포마 아크릴

봉제 플랜트 공사
각종 메사 제작
2층 공사, 전기공사
에어 배관공사
보일러 배관공사

뚤람수 로떼 9 만사나 A 섹또르 5
소나 4 데 믹스꼬
전화 : 이사삼사-이이오이/일오삼사
팩스 : 이사삼칠-팔구영칠
핸드폰 : 오영영사-영팔영육



체리쉬

☎ 5000-7503
한국관 옆 (구)다솜





SALE

한국 여성의류 (50%)
여성 수제화
(원가이하)





빨링 빅토리아
Korea House
"확장개업"

전화 : 5203-0302
PALIN LAS VICTORIA
LOCAL 5,6

모든 MENU의
ONE STOP & ONE SHOPPING

숯불갈비, 돼지껍데기, 솥뚜껑 삼겹살





* 활어회, 통닭 다양한 메뉴
* COLONIA 내 배달 서비스
* 단체 손님 환영
* 일요일 정상영업

정 치 · 경 제

'대선주자' 안철수 지지율 45%→21%→3%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선?

지난 2011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양보 이후
내년 보궐선거에서 10년만에 '탈환' 가능할까
최근 전국단위 지지율 하락세..대반전 노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하면서 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최근 전국단위 지지율(대선후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해온 안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대표에 대한 전국단위 지지율은 지난 몇달 간 반등없이 횡보해왔다는 평가다.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서 안 대표의 대선 후보 지지율은 2.9%를 기록했는데,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25.8%),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20.2%), 이재명 경기도지사(20.2%) 등 빅3는 물론 홍준표 의원(5.2%), 오세훈 전 서울시장(4.4%), 추미애 법무부 장관(4.4%), 유승민 전 의원(3.8%)에도 뒤쳐지는 수치였다. 차기 대선을 노리던 안 대표지만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분위기 반전을 모색할 수 밖에 없는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은 50%안팎까지 치솟았다. 정계 입문을 한 것도 아니고,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았을 때였다. 하지만 안 대표는 당시 지지율이 5%에도 못 미치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장을 양보했고 박 전 시장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지난 2012년 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안 대표는 45% 안팎의 높은 전국단위 지지율로 대선 후보가 됐다. 당시 박근혜 후보와 맞대결을 벌일 뻔 했지만 막판 문재인 후보에게 양보(단일화)했고,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승리로 돌아갔다.

서울시장과 대선후보를 두 번 양보한 후 이듬해 치러진 서울 노원병 재보궐선거에서 안 대표는 무소속 출마 60.4% 득표율을 기록하며 첫 선거 승리를 거두고 국회에 입성한다. 이어 2016년 20대 총선에서도 국민의당 간판을 달고 52.3%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제 19대 대선에서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 의원에 이은 3위(21.41%)라는 쓰디쓴 성적표를 받아든다. 이후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자신이 양보했던 박원순 시장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결과는 박 전 시장(득표율 52.79%)의 낙승이었다. 안 대표는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23.34%)에게도 밀린 패배(19.55%)로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국민의당 '先입당 後경선' 불가 "安, 국민의힘 입당 검토 안 해"

안철수, 입당 대신 '범야권 연립 지방정부' 제안
권은희 "국민의힘 통합·입당은 좋은 선택 아냐"
이태규, 국민의힘 입당 질문에 "전혀 검토 안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일 '범야권 연립 지방정부'를 제안해 국민의힘으로의 입당 가능성을 사실상 일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안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별도 언급이나 공식적인 입장을 일절 내지 않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안 대표와 국민의힘이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을 앞두고 벌써부터 기싸움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야권이 힘을 합쳐서 새롭고 혁신적인 시정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다음 서울시 집행부는 범야권 연립 지방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혜와 힘을 한데 모아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기운으로 서울시를 혁신하겠다"며 "'연립 서울시 정부'를 통해 야권의 유능함을 보여주고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의 범야권 연립 지방정부 제안은 사실상 국민의힘을 비롯한 당 밖 인재를 적극 수혈해 서울 시정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로, 이는 당내 인적 자원이 적은 국민의당 특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국민의당 지도부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후보단일화 방식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야권을 단일화 후보를 선출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아직 지배적이거나 주류적이거나 관철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거는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며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안 대표의 입당 후 경선 참여 가능성은 수용불가로 쐐기를 박았

빨링 빅토리아
누나식당/하숙
"탕" 전문식당
흑염소탕/영양탕
5692-9149
Palin Victoria Sec.67 Casa #1

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국민의힘과 통합과 입당을 해서 단일화를 하는 방법은 서울시민들의 인식에 비춰봐서는 더 좋은, 더 잘한 선택은 아닌 것 같다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의 인식과 판단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당이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후순위인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라고 답했다.

당 사무총장인 이태규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선(先)입당 후(後)경선 방식에 대해 "현재로선 그런 의견들을 김종인 위원장님도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또 국민의힘의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하면 제일 무난하고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을 주시는데 현재 그런 부분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대당 결선 경선이나 막판 후보단일화 방식에 대해선 "안 대표는 이런 부분에서 판단을 하거나 내부적으로 어떤 방식을 갖고 논의해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후보단일화 방식을 둘러싼 협상 기구와 관련해선 "만약에 후보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야권 지지층의 요구들이 있고 양당이 그런 필요성을 느낀다면 당연히 실무를 논의하는 기구나 협의체는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든다"며 "만약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면 단일화를 위한 논의는 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다.

"반응 필요 없다"는 김종인..안철수 '밀어낸' 세번의 장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긍정적 반응이 많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무관심'으로 대응한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안 대표가 정치적 역량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안 대표를 평가절하했다.

21일 국민의힘 비대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전날(20일) 화상 비대위 회의에서 안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우리 당이 너무 앞서 나가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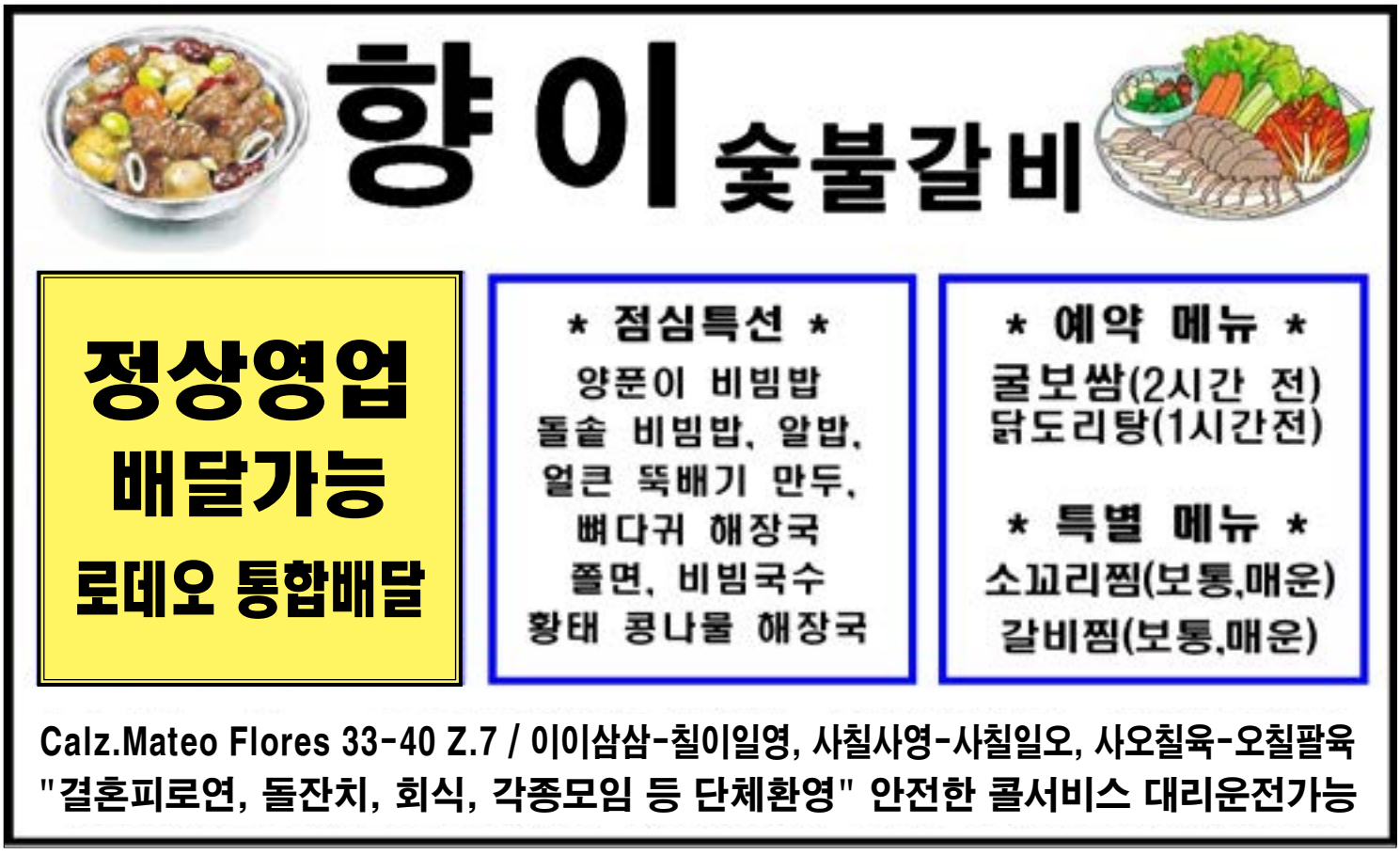
정치권 안팎에선 김 위원장이 과거 안 대표를 안좋게 평가한 세번의 에피소드를 토대로 김 위원장의 냉랭한 반응을 예상했다는 분위기다.

첫번째 장면

김 위원장은 지난 9월24일 공식 석상에서 안 대표의 정치적 역량에 대해 박한 평가를 내렸다.

김 위원장은 당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민의당과 연대 관련 질문에 대해 "(안 대표는) 내가 평가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알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본인이 안 대표의 정치적 역량을 가늠한 일화까지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안 대표가 정계에 입문



했을 때 대화를 나누다 자리를 떴을 정도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안 대표에게) '정치를 하고 싶으면 국회부터 들어가서 정치를 배워야 한다'고 했더니 나를 보고 '국회의원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데 왜 자기한테 하라고 하느냐'고 했다"며 "도대체 이 양반이 정치를 아느냐고 생각해서 말을 이어가지 않고 자리를 떴다"고 했다.

두번째 장면

김 위원장과 안 대표는 지난 10월 22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55회 전국여성대회에서 만났다. 당시는 야권에선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연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던 때였다. 하지만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한 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안 대표가 축사를 하는 도중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김 위원장은 당시 행사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물음에 "경선 룰을 책정해 룰대로 하면 된다.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안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답변이다. 안 대표는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과) 옆자리에 있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화를 못하게 만든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세번째 장면

안 대표가 '야권 혁신 플랫폼'을 주창하며 야권 연대에 박차를 가할 때도 김 위원장은 선을 그었다. 안 대표는 지난 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던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을 방문해 격려했다. '반문(반문재인) 연대' 메시지 차원이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 대표의 방문에 대해 "무슨 뜻을 가지고 방문하는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이같은 김 위원장의 냉랭한 태도가 향후 급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전까지 안 대표는 2022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시사하며 서울시장 출마에는 뜻이 없다고 밝혀왔다. 김 위원장으로선 지지율상 강력한 '대선 카드'가 아닌 안 대표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서울시장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당 안팎에서 안 대표가 제안한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면, 김 위원장이 태도 변화에 나설 수도 있다.

與 "인사청문회, 낙마 전제 무차별 의혹 지양..정책 검증해야"

"흠집내기 골몰은 낡은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장관 후보자들이 연일 구설수에 오르내리자 이번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쟁이 아닌 정책에 집중하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책과 대안을 따져보고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며 "낙마를 전제하고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거나 흠집내기에 골몰하는 낡은 정치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의역 김군' 관련 발언 등으로 설화에 휩싸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은 국민의 생활에 밀접하고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밖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백신 접종을 앞두고 반드시 이겨내야만 하는 중대한 고비다. 방역 최일선에선 이들 부처 장관의 청문회는 코로나 방역과 국민안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차별과 폭력을 해소하고 성 평등한 사회로 진일보하려는 정책도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코로나로 인한 엄중한 시기에 청문회를 정쟁으로 끌고 간다면 국민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4일에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여의도도 백신 전쟁 與 "안전성 우선" vs 野 "대통령이 나서라"

민주당 "야당이 불안과 공포 조장..K방역 흠집내기에 몸달아"
국민의힘 "정총리, 백신 실패 자인..대통령이 백신TF 및 면책장치 만들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종식의 단초가 될 백신 확보 정책을 둘러싼 정부의 부실 대응 논란을 놓고 여야가 20일 뜨거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백신의 안전성을 우선시하며 야당과 언론의 '가짜뉴스'에 따른 혼란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백신 공급에 대한 정부의 정책 실패로 몰아붙이며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민주, 백신 안전성 강조…"사망자 폭증하는 해외와 달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백신의 안전성을 거듭 강조했다. 백신 도입 시기가 다른 국가들보다 사실상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백신 접종은 전 국민이 대상이어서 안전성을 최대한 검증하게 접종하는 게 원칙"이라며 "우리 국민 70% 이상은 안전성이 확인되고 백신 접종을 받겠다고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먼저 백신 접종에 서두른 이유로 "미국 확진자 수가 1800만명이고 사망자가 30만명, 일일 확진자가 20만명 이상으로 백신 접종만이 유일한 방역조치"라며 "확진자나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등과 대한민국의 조건은 다르다"고 말했다.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12월 24일, 12월 31일, 1월 1일 쉽니다.

연중무휴 배달 (오전11시~오후8시)

중국집



술상셋트 400

탕수육 칠리탕수육	중 택1
+	
고추잡채 중국집잡채 누릉지탕	중 택1
+	
깐풍기(육) 라조기(육)	중 택1

술상셋트 500

탕수육 칠리탕수육	중 택1
+	
깐풍새우 깐쇼새우 칠리새우	중 택1
+	
양장피 유산슬 짬뽕홍합탕	중 택1

밥 류▶▶▶
- 볶음밥
- 짜장밥
- 짬뽕밥
- 잡채밥
- 야끼밥
- 잡탕밥
- 고추밥
- 중화비빔밥
- 마파두부밥
- 삼선볶음밥
- 유산슬밥
- 고기덮밥



요리류▶▶▶
- 탕수육
- 칠리탕수육
- 깐풍기·육
- 라조기·육
- 양장피
- 팔보채
- 유산슬
- 잡 탕
- 누릉지탕
- 칠리새우
- 깐풍새우
- 깐쇼새우
- 고추잡채
- 중국집잡채
- 짬뽕홍합탕

면 류▶▶▶
- 짜장면
- 간짜장
- 불짜장
- 쟁반짜장
- 삼선짜장
- 삼선간짜장
- 삼선쟁반짜장
- 유니짜장
- 고추짜장
- 짬뽕
- 불짬뽕
- 삼선짬뽕
- 차돌박이짬뽕
- 우동
- 야끼우동
- 삼선우동
- 울면
- 기스면
- 콩국수



쿠폰제실시

인스타그램 junggukjip

전화 2212-5639 / 2439-3508 36ave. 1-59 zona 7 colonia toledo

ÓPTICA CAMALEÓN

2361-4731 3761-9349

opticacamaleon@gmail.com

ÓPTICA CAMALEÓN

3Ave. 12-28 Zona 9

Waze로 OPTICA CAMALEON을 검색!

명가식당 정면으로 70m에 위치

월~토 (9:00~5:00) 주차장 완비



일요일 (10:00~5:00)

한인안경원 <OPEN> 이벤트

한국인에 맞는 편안한 안경 다량 보유

토마토 어린이 안경 전모델 보유

※Q200 부터(무반사(AR) 렌즈 포함) ※

50분 완성(검안포함)

30분완성 (렌즈만 교체 - 검안 제외시)

※ 사은품 증정 ※

민주당은 그러면서 야당의 '백신 실패' 공세를 사실 왜곡을 동원한 정쟁으로 깎아내렸다.

이낙연 대표는 회의에서 "야당은 국민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데, 그런 행태는 방역을 교란하고 위기를 증폭시키며 결과적으로 민생 안정을 해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도 "지금 정부는 겨울철 악조건과 함께 야당과 일부 언론의 확인 안 된 뉴스, 비틀기 뉴스, 흔들기라는 방역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야당과 보수언론 태도는 무척 실망스럽다. K방역을 흠집내기 위해 몸이 달아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신 최고위원은 "K방역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흔들려는 자, 심지어 보선에 맞춰 백신 접종을 한다는 음모론을 퍼뜨리는 자들이야말로 반국가적, 반사회적 세력"이라고 야당을 정조준했다.

◇국민의힘 "최고 방역은 백신…정부 실패 자인"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실책을 인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수습에 나설 것을 압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 백신 구입에 발 벗고 나서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은) 생색내고 자랑할 자리에 집착 말고, 헌신하고 국민 구할 험궂은 곳에 계셔라"라고 촉구했다.

성 비대위원은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방송 인터뷰에서 "지난 7월에는 백신 의존도를 높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최고의 방역이 백신인데, 정부 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백신 확보 및 구입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며 "다름 아닌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민간합동 범부처 백신 TF팀을 만들고, 백신 전문가를 선임해 모든 권한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통상의 국가 입찰 프로세스를 뛰어넘고 법적 허들을 제거해야 공무원들은 소신껏 일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면책 장치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시작부터 백신 확보를 그토록 외쳐대고 예산 확보를 제안하는 동안 정부는 어디에 있었나. 무엇을 하고 있었나"면서 세계 지도자들의 백신 확보 사례를 나열하며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참을 수 없는 정부의 무신경"이라고 꼬집었다.

통일부 "금강산 문제, 남북이 적절한 시기에 만나 협의하자"

"남북, 금강산 문제 해결 및 국제적 관광지 발전 필요성에 공감"

통일부는 21일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만나 협의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남과 북이 금강산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김덕훈 내각총리가 금강산 관광지구를 찾아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국제관광문화지구로 꾸리기 위한 개발사업을 연차별, 단계별로 밀고 나가겠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내각총리는 "관광지구를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면서도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이 결합된 우리 식으로 건설함으로써 민족의 명산 금강산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명산,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문화휴양지로 되게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Tel. 2479-1394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영동

한.중식 전문

정 상 영 업

포장 및 배달 됩니다



주소 : 11 Calle 5-08 Z.9 / 오후 9시까지 영업

전화 : 오영일팔-일일칠육/이삼삼일-삼사일사/이사사일-오이육육

북한은 지난해 10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너절한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라는 지시가 나온 뒤 같은 해 12월 남측 시설물을 올해 2월까지 모두 철거하라고 우리 측에 통보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북측에 지속적으로 대면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지만 북측의 일방적인 대남 통지문 발송으로 인해 문서협의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지난 1월30일을 끝으로 문서협의도 중단됐다. 북측은 당시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철거 계획 연기를 통보한 바 있다.

3단계 임박? "대형마트·온라인 매장 사재기 없다"

지난 주말 매출 10~20% 증가 그쳐..품절 사태 없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소비자들의 사재기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주말 대형마트 매출은 이전 주말보다 10~20% 증가한 수준에 그쳤으며 백화점 식품관이나 온라인 쇼핑몰도 큰 차이가 없었다.

유통업체들은 물량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다가 정부가 3단계로 격상해도 대형마트의 생필품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어서 사재기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21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지난 주말 매출은 의무휴업일이 없었던 2주 전 주말(5~6일)보다 13.8% 증가했다.

라면(22.4%), 두루마리 휴지(18.9%), 생수(15.4%), 즉석밥을 비롯한 상온밥죽(28.5%) 등 생필품 매출이 평소 주말보다 많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이마트에선 과일(20.1%), 채소(15.9%), 육류(13.2%), 수산물(14.3%), 가공식품(25%) 등 식품 매출이 증가했지만, 물량이 동 나는 상품은 없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한 번 장을 볼 때 평소보다 많이 보는 것으로, 사재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유통업계의 설명이다.

홈플러스에서도 쌀, 휴지, 간편식 등이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판매되는 정도였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는 집계 중이나 사재기라고 볼 수준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백화점 식품관도 비슷했다. 롯데백화점 식품관의 지난 주말 매출은 직전 주말 대비 26% 증가했으나 작년 동기 대비로는 여전히 마이너스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18~19일(금~토요일) 식품관 매출이나 고객 수가 전주 같은 요일 대비 20~30% 증가했으나 품절 현상은 없었다고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도 지난 주말 사이 매출이나 판매 추이에 큰 변동은 없었다.

신세계그룹 통합 온라인몰인 SSG닷컴의 주간 배송인 쓱배송 주문 마감률(주문 처리 가능 건수 대비 주문 건수)은 지난 19일 91.2%, 20일 99%를 기록했다. 19일 새벽배송 마감률은 98%였다.

처리 가능 한도에 가까운 주문이 들어왔다는 의미지만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이후 주문 마감률이 연일 95% 이상을 기록 중이어서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것이라는 전망에 주문이 더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SSG닷컴은 설명했다.

SSG닷컴 관계자는 "지난달과 비교하면 1인당 평균 구매 금액이 10% 정도 늘어난 수준"이라며 "물건을 한두 가지 더 담는 정도"라고 말했다.

마켓컬리에서도 지난 주말 주문량이 전주 주말 대비 4% 증가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연말인데도 외식이 어렵다 보니 온라인 장보기를 계속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돼도 사재기 현상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통업체들이 수급 안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데다가 소비자들 사이에 생필품 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는 이유에서다.

유럽 봉쇄령 속 위기의 현대·기아차 "기댈 언덕은 전기차"

유럽 고강도 셧다운..자동차 12월 판매 '미궁'
▽ 봉쇄령 속 자동차 시장 '위축'
▽ 전기차는 판매 호조..시장 점유율 7%

유럽에서 고강도 봉쇄조치로 판매량 급감 위기에 놓인 현대·기아차가 전기차로 활로 개척에 나선다.

21일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지난달 현대·기아차의 유럽 시장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1% 감소한 6만5943대에 그쳤다. 점유율도 작년(6.8%)보다 0.5%포인트 떨어진 6.3%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유럽 자동차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지난달 유럽 자동차 시장 전체 판매는 104만7409대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5% 감소했다.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 확진자가 대거 쏟아지고 있어 12월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에는 영국발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소식에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방역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영국은 대응 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비필수 업종 영업을 중단하는 4단계로 높였고 독일도 지난 16일 전면 봉쇄 조치를 시행했다. 스위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도 내년 1월까지 긴급 봉쇄령을 이어가고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영국발 이동 및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강도 높은 봉쇄 조치는 차량 수요도 줄인다. 이동을 할 수 없는 만큼 자동차를 사려는 소비자가 줄어들고, 영업 중단과 실직 등이 속출해 소비자의 구매력도 감소한다. 소비자에게 고가 소비재인 자동차의 우선 순위는 낮아질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현대·기아차는 전기차를 돌파구로 삼아 실적 개선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대·기아차는 내년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활용한 아이오닉5와 CV(프로젝트명) 출시를 예고하며 유럽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엄포를 놓은 상태다.

당장 올해는 유럽 자동차 시장 진출 이래 처음으로 연간 점유율 7%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달 판매량 하락으로 두 회사 1~11월 누적 판매량은 76만7112대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3% 줄었지만, 누적 시장점유율은 7%대를 유지했다.

코로나19 타격을 받은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전기차 판매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11월 현대·기아차 전기차 판매대수는 1만701대로 지난해 11월(3594대)과 비교해 197.7% 급증했다. 현대·기아차 전 차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4%로 늘어 지난해 11월 4.2%에 비해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올해 전기차 누적 판매량도 8만4612대로 전년 4만776대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유럽 전역에 강화된 이산화탄소 규제가 전기차 판매에 힘을 불어넣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유럽연합(EU)은 올해부터 차 한대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한폭을 늘렸고 본격적인 내연기관차 퇴출에도 나섰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4년 뒤인 202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내연기관차 차량 판매 금지 시기를 기존 2040년에서 10년 앞당긴 2030년으로 못박았다. 자동차 종주국인 독일은 2030년부터, 프랑스는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송선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친환경차 위주의 구매 지원으로 유럽 전기차 시장의 고성장이 예상된다"며 "2021년도에도 정책 효과와 완성차들의 전용 전기차 출시로 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에 외국인 실업자도 역대 최대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체류 외국인을 포함한 이민자 실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 133만2,000명 중 실업자는 지난해보다 1만9,000명 늘어난 7만명이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외국인 취업자는 84만8,000명으로, 작년대비 1만5,000명 줄었고 고용률은 63.7%로 1.6% 하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코로나19 탓에 외국인 고용률이 높은 제조업, 숙박·음식점업에서 취업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나를 위한 메세지

시각예술로 가는 길. 앤지정 화실
한국 최대 입시 미술학원 그린쉽 과테말라 지점

가택 대피 기간 동안 앤지정 화실 학생들이 주간 과제를 통해 제작한 작품들을 소개 합니다. 현 상황에 영감을 받은 주제들을 그림과 짧은 글로 표현했어요.



첫번째 작품: Time Usually Flies 작가: 최아영

(주제: 집에서 찾을수 있는 비전문 재료로 요즘의 일상을 표현하라)

This drawing shows how I have been feeling these days during quarantine. I have been feeling time hasn't been moving. Time feels so slow, and as I can't do anything as I would usually do. Time feels broken. The sunflower represents my happiness and the letters "love" represent an artwork I had seen during my visit to Korea. I have been feeling down lately and the scissors are cutting all of the things I love away. This piece is drawn with watercolor, coffee and tumeric; all materials I found laying around in my house.

유튜브채널: Mishushu (https://www.youtube.com/user/queenhyona)
카톡아이디: angienius@gmail.com
카톡 QR코드
전화: 5834-1414 웹싸이트: angiechung.com 이메일: whenartistheway@gmail.com



MISO
미소 (ZONA 7 점 오픈)



순대, 해물, 숯불 전문 (숯불구이최상급 수입육)

최상급의 재료만을 사용하여 정성을 담아 만듭니다

순대국, 김치순대, 순대곱창볶음, 내장탕
쭈꾸미 연포탕, 쭈꾸미 찜, 쭈꾸미 볶음
매운오리불고기, 냉채족발, 돼지머리수육



전화번호 : 4150-3788 (박상민 클리닉 맞은편 위치합니다)
C.C. Mateo Xpress, 36 Ave 1-74 local 15 Zona 7 / 매주 화요일 쉽니다

사 회

수도권 '5인이상 모임' 금지

성탄절·새해 연휴 핀셋방역 강화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 오후 2시 행정명령 발동 기자회견
연말연시 방역강화안 내일 발표
겨울 스포츠시설-해돋이여행 등 당국 "3단계는 상황 지켜보며 논의중..격상땐 2~3일 전에 고지"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앞서 일단 연말연시 방역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 대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성탄절과 새해 연휴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3단계 격상 여부와 관계없이 취하는 이른바 '핀셋 방역' 조치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1일 오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시기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가 유력하다.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현행 거리두기 3단계 하의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서울시가 연말연시에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침을 정하고, 오늘 오후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는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논의해 공유한 사항이며, 서울시가 현재 검토 중인 대책 중 일부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22일 성탄절과 새해 연휴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손 반장은 "크리스마스 연휴와 새해 1월 1일과 관련해 방역을 강화하는 부분을 검토 중"이라며 "중대본 차원에서 오늘 오후에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해 내일 해당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정 여부와 무관하게 크리스마스·새해 연휴 기간에 현재 문제가 되는 시설 또는 모임들에 대한 방역 관리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스키장 등 겨울 레저 스포츠 시설이나 해돋이 여행, 지역사회 내 감염이 넓게 퍼진 수도권 지역의 요양병원 등에 대한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어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는 "현재 3단계(격상)에 대한 의사 결정은 상황을 지켜보며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3단계로 격상할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자 등이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2~3일이라도 확보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진중앙교회서 28명 확진..대구 교회 집단감염 4번째

대구시 동구 봉무동에 있는 광진중앙교회에서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무더기 발생했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광진중앙교회 선교사 2명이 선교 활동을 위해 출국하기 전 받은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이 교회 신도 120명 중 97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26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대구시는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를 파악 중이며 검사를 받지 않은 23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지난 11일 달성군 영신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교회발 확산세가 그치지 않고 있다.

대구 소재 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이날 오전 0시까지 달성군 영신교회에서 61명, 중구 새비전교회에서 36명, 남구 신일교회에서 19명이 확진됐다.

광진중앙교회 확진자는 22일 공식 집계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 "아스트라제네카, 확실히 내년 2~3월 국내 들어온다"

"여러 절차와 경로로 확약 돼 보장..진행 과정 신뢰해달라"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이 내년 2~3월에는 반드시 국내에 들어온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1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내년 2~3월에 국내에 들어오는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백신 구매 계약을 공식 체결한 유일한 제약사다.

정부는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내년 2~3월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여러 차례 발표했지만, 도입 지연 가능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특히 양측이 체결한 구매계약서에 공급 일자나 분기 등 구체적인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이 부분은 정부가 몇 번에 걸쳐 내년 2~3월에 들어온다고 말씀드렸다. 여러 경로로 확약 돼 있고, 보장돼 있다"며 "확실하게 내년 2~3월에 들어온다"고 답했다.

그는 "이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여러 절차와 경로를 통해 보장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여러 차례 발표했음에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공급되느냐는 질문이 반복돼 곤혹스럽다"며 "진행 과정에 대해 신뢰를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에서 각각 1천만병분, 존슨앤드존슨-얀센에서 400만명분 등 모두 3천400만명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중 선구매 계약이 체결된 곳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고 화이자와 존슨앤드존슨-얀센과는 연내, 모더나와는 내년 1월에 계약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들 해외 제약사와 별개로 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서도 1천만명분을 구매하기로 했다.

징계위 "尹 해임 가능했지만 검찰총장 특수성 고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봤지만,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정직으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결정문에서 "징계혐의자 비위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다"면서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이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징계위는 "검찰청법은 검찰총장 임기제를 보장함으로써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 훼손이 비위사실이 돼 있기 때문에 징계혐의자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관한 깊은 숙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어떤 경우에도 검찰총장 임기제는 보장돼야 하고, 그것이 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문언상 해임 이상의 징계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역사상 처음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임을 감안해 징계양정을 감경했다는 의미가 명확하다.

징계위가 윤 총장 징계에 적용한 혐의는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의심 등에 따른 품위 손상 등 4개다. 징계위는 각각 혐의들이 모두 중요해 하나만으로도 해임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했고, 종합한다면 해임은 당연하다고 봤다.

그러나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는 것이다.

징계위는 또 "법률에 의해 신분보장을 받는 검사에 대한 해임·면직은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비중 있게 고려했다"며 "무엇보다도 이 사건 징계가 국민들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깊게 고민했다. 징계로 인해 발생한 형사사법기관 혼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편함이 하루빨리 해소돼 안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문(不問) 결정을 내린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서도 의심될 만한 정황은 확실하다고 적었다. 언론사 사주를 부적절한 타이밍에 만났고 감찰을 위한 방문조사 등도 거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들만으로는 징계할 정도까지 혐의가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불문 결정을 했다.

또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혐의로 판단했다.

조국 사태 16개월 정경심 1심 이번주 선고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에 마무리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재판부 사찰 의혹 등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도 열린다.

'조국 사태' 1년4개월…정경심 재판 마무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위조 사문서 행사 등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해 9월 6일 조 전 장관 청문회 당시 정 교수를 기습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은 시작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이 정 교수 측에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여러 차례 공전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6일 기소 당시 자녀 입시 관련 표창장 위조 날짜를 2012년 9월 7일로 특정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청문회 당일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하며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사문서 위조·변조죄 공소시효는 7년이다.

하지만 검찰이 12월 법원에 낸 추가 공소장에는 2013년 2월에 위조가 이뤄졌다고 적혀있다. 재판부는 날짜·장소·사람이 모두 달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공소시효를 핑계로 정치적인 기소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수집 증거를 두고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양대에서 검찰이 임의제출받은 강사휴게실 PC는 비품 스티커나 학교 자산으로 등록되지 않았는데도 검찰은 해당 PC가 이 학교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입수한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 증거는 대부분 강사휴게실 PC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위법 수집증거와 관련한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위법 수집증거에 관한 판단은 보통 선고 시점에 이뤄진다.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선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462만여원 추징 명령과 강사휴게실에서 압수한 PC 2대 몰수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 수사가 조 전 장관 낙마를 목표로 과도하게 이뤄진 '표적 수사'라고 맞서고 있다.

정직 2개월 반발…윤석열 총장 행정소송 첫 심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결을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정직 2개월 징계가 확정됐다. 윤 총장 측은 다음 날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행정소송에서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하며, 징계 집행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국시 실기시험 재응시 기회?

"의대생 입장 확인이 우선" 정세균 총리 "코로나 상황 등 고려해 조만간 재시험 여부 결정"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의사국시 실기시험 추가 기회 부여와 관련해 "조만간 현실적 필요와 우리가 처해 있는 코로나 상황까지 고려해 아마 조만간 정부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의사국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의 부재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 부분들과 관련해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추가 기회 부여 불가'라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총리께서 답변한 부분들은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인력의 공백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The Sky Massage Center

하루의 피로를 싹!!

100%
예약손님만
받습니다.



https://www.facebook.com/pg/theskyguatemala
16 calle 0-51 zona 14 / 2219-5302 / 9:00~4:00

Caretas Ultra Clear
Q4.00/cu



YC GLOBAL
CEL.: 4011-1689
TEL.: 2259-7064

Sujetador de Mascarilla
Q0.50/cu





Cinta Precaucion
Q65



Q25
48mm
*33m



Cinta de Señalización

손 반장은 "최근 겨울철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내년 의료인력 공백도 또 하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점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시행한 2021년도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는 응시 대상자 3,172명 가운데 423명의 응시했다.

응시자 423명 중에서 58명이 불합격해 합격자는 365명에 불과하다. 큰 규모의 신규 의사 인력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가 의사국시 실기시험 추가 기회를 주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정총리의 발언 의도를 파악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국시원 한 관계자는 "실기시험 추가 시행 여부와 관련해 복지부에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하지만 추가시험을 치른다면 당연히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추가시험이 결정되면 현재 진행 중인 국가시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시원은 현재 의사국시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필기시험이 끝나면 바로 간호사, 한의사, 약사, 영양사 국가시험 일정이 이어진다.

일각에서는 실기시험을 무더기로 거부한 학생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의대생들은 의사국시 추가 기회 문제와 관련해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어 정부가 재응시 기회를 주더라도 또다시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급하게 일정을 잡아 1월 중 시험을 치를 경우 의대생들이 실기시험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수 있다. 참고로 올해 치른 의사국시 실기시험 합격률은 86.3%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내년 서울시에 국내 최초 장기기증자 기념 공원 조성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는 2021년 국내 최초로 서울시에 장기기증자의 생명나눔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 공원이 조성된다고 21일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장기기증자 기념 공원 조성 등 내용을 포함한 내년 예산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념공원 조성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2018년 본부가 686명의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기념공원 조성을 원한다는 답변이 44%로 가장 많이 나왔다.

서울시가 올해 기념공원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공원 조성 검토 예정지로는 청계천, 월드컵공원, 하늘공원, 남산공원, 북서울꿈의 숲 등 5곳이 선정됐다. 최종 조성지는 향후 타당성 검토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정해진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기념공원 조성을 통해 생명을 나눈 분들에게 존경의 뜻을 전하고 성숙한 장기기증 문화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둘째 낳읍시다" 제주, 내년부터 출산 가정 파격지원

육아지원금 1000만원, 주거임차비 1400만원 중 택 1
일회성 출산장려금 5년간 확대 지원으로 육아 공공성 강화키로

"둘째를 낳아주세요. 제주도가 이렇게 지원합니다."

제주지역 한해 출생아 수가 10년 새 20%나 감소하자 제주도가 파격적인 육아 지원 정책을 내놨다.

5년 간 주거비와 양육비를 지원해 부모들이 아이 낳기를 망설이는 가장 큰 걸림돌을 해소하기로 한 것이다.

제주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1000만원 해피아이 정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내년 1월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된 둘째 이상 아이의 부 또는 모로, 주거임차비 1400만원과 육아지원금 100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주거임차비는 전세보다 연세를 내고 집을 빌리는 가구가 많은 제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마련했다. 무주택 가구에 한해 5년 간 연 280만원을 지원한다. 육아지원금을 선택하면 매년 200만원을 5년 간 지급 받게 된다.

두 정책 모두 부·모 또는 출생아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된다. 보편적 지원인 만큼 소득 기준에 따른 별도의 제한은 없다. 다만 출산일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제주도에 거주한 가구여야 한다.

제주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1.15명이다. 전국(0.92명) 평균보다는 높지만 '초저출산'(1.3명 이하) 범위에 든다.

연 출생아 수가 2010년 5657명에서 2019년 4500명으로 20%나 감소했고, 특히 둘째아 이상 출생아 수가 같은 기간 3194명에서 2210명으로 31% 떨어졌다. 첫째아 출산 후 둘째 이상 자녀 출산을 망설이는 가정이 많다는 의미다.

제주도는 "기존에 일회성으로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5년으로 늘리고 지원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육아의 공공성을 강화한 정책"이라며 "제주지역 출산 장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한편 기존에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출산장려금(둘째아 이상 200만원 지원), 양육수당(둘째아 이상 연 60만원) 지급 정책은 '1000만원 해피아이 정책'에 통합돼 내년부터 폐지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출산·양육 정책은 이와 별개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아파트 룸메 구해요" 13세 소녀 데리고 있던 46세男

가출 종용 40대, 2심도 집행유예 피해자 용인에서 군산까지 유인

10대 여성 청소년을 데리고 있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B(13)양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법에 따르면 실종아동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면 처벌받는다.

A씨는 온라인 가출 카페에 "애들이 밖에서 잠을 자는 것이 안타까워서 룸메이트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댓글을 통해 알게 된 B양을 경기도 용인에서 군산까지 오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는 B양이 사라지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A씨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고 싶다는 피해자의 말에 "위치 추적 우려가 있다"면서 장소를 옮겨 통화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 보호했을 뿐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

1심 재판부는 "룸메이트를 구한다면서 아동의 가출을 방임하고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와 함께 있으면서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았던 피고인의 범행은 그 내용 자체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성 매수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집행 유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직 가출한 상태가 아니라 본인 집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메신저 대화를 통해 알고 있었음에도 가출하지 말라고 조언한 것이 아닌 가출하면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용인에서 군산까지 가출을 종용한 점 등에 비춰보면 1심 판결은 정당하다. 양형부당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1심은 불리·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서 재량의 합리적 법안에서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본가 RESTAURANTE BONGA



전골류	안주류	육 류	찌개류	국수류	예약메뉴
샤브샤브	아구찜	(솥뚜껑구이)	꼬리곰탕	냉 면	오리백숙
부대찌개	두부김치	꽃등심	된장찌개	칼국수	닭백숙
동태전골	춘천닭갈비	안창살	청국장	잔치국수	보쌈, 족발
불고기전골	오징어볶음	LA갈비	육개장	콩국수	
만두버섯전골	골뱅이무침	삼겹살	어죽탕		
소고기버섯전골	오리주물럭	돼지갈비	순두부찌개		
오삼불고기전골	김치고등어찜	오리주물럭	돼지김치찌개		
어죽탕국수전골	김치돼지갈비찜				
돼지김치두부전골					

덮밥류
제육덮밥
불고기덮밥
오징어덮밥

맛있는 김치 주문받습니다



오토바이 배달

2445-6050, 3147-7921 / 34 AVE. 1-36 Z. 7 (NAIS 식당 건너편 위치)
본가 옆 나이스 주차장 사용가능 / 로데오 합동 배달서비스 이용 가능

국 제

유럽 국가들 영국에 '빗장' 항공편 잇따라 중단

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 등 영국발 항공편 운항 금지..프랑스는 모든 이동 일시 중단
EU 전체 차원 제한 가능성..회원국 공동대응 논의 예정

영국에서 전염력이 강한 변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유럽 국가들이 영국발 항공편 운항을 잠정 중단하는 등 잇따라 여행 제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영국이 변종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 런던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대한 긴급 봉쇄를 단행한 가운데 다른 유럽 나라들이 변종 유입 등을 차단하기 위해 속속 빗장을 걸고 있는 것이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AP 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루마니아 등 유럽 국가들은 이날 잇따라 영국발 항공편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독일 정부는 변종 코로나19에 대응해 이날 밤 12시부터 화물기를 제외한 모든 영국발 항공편 착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독일 정부 소식통은 AFP에 이러한 제한 조치가 EU 27개 회원국 전체에 의해 채택될 수 있다면서 회원국들이 영국과의 해상, 육상, 철도 연결 수단과 관련한 공동 대응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프랑스 정부도 이날 밤 12시부터 48시간동안 영국에서 오는 모든 이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일간 르파리지앵이 전했다. 도로, 항공, 해상, 철도를 이용한 이동은 물론 화물 운송도 불가능해진다.

앞서 네덜란드 정부도 이날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영국에서 승객을 태운 항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벨기에 정부도 이날 밤 12시부터 최소 24시간 영국발 항공편과 유로스타를 포함한 열차 운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정부 역시 영국발 항공편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또 최근 14일간 영국에 체류했거나 영국을 경유한 사람의 입국을 금지하는 한편 이미 자국 내 체류하는 영국발 입국자에 대해선 신속하게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할 방침이다.

체코도 지난 2주 사이 영국에서 최소 24시간 머무른 뒤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이날부터 격리 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유로스타는 영국 런던과 벨기에 브뤼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사이를 운행하는 열차를 21일부터 취소하기로 했다.

EU 차원의 대응에 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과 해당 사안을 논의했다고 엘리제궁이 밝혔다.

올해 하반기 EU 순회 의장국인 독일의 대변인이자 외교관인 제바스티안 피셔는 오는 21일 변종 코로나19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원국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으며, 영국에서 발생한 변종 코로나19에 대한 조율이 의제라고 말했다고 dpa 통신은 전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전날 수도 런던을 비롯한 잉글랜드 남동부에서 변종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자 긴급 봉쇄조치를 단행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심각한 질환이나 높은 사망률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지만, 훨씬 더 빨리 전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긴급 봉쇄조치를 발표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日 '고 투 트래블' 스가의 고집 확진 20만 넘어

50여일만에 감염자 2배로 폭증
내수부양 정책 지속 확산 부추겨

일본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내수부양을 위해 '고 투 트래블(Go to travel)' 정책을 펼치다 오히려 코로나19 확산만 부추겼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1일 마이니치신문 집계에 따르면 전날 전국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과 공항검역소별로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는 도쿄 지역 556명을 포함해 총 2501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요코하마항 정박 중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선자 712명을 포함한 누적 확진자는 20만68명이 되면서 20만명 선을 넘어섰다.

일본 전체 확진자 수가 20만명대에 올라선 것은 올 1월 16일 첫 환자가 발표된 후 11개월 4일 만이다. 또 첫 감염자 확인 후 9개월여 만인 10월 29일 10만명대를 기록하고 나서 1개월 22일 만에 전체 확진자가 2배로 불어나는 등 최근에 감염 확산 속도가 한층 빨라졌다.

일본은 3~5월에 1차 유행기(제1파)를 거친 뒤 8월을 전후해 2차 유행기를 맞았다. 2차 유행이 절정이던 8월에는 하루 평균 약 1000명의 확진자가 나오다가 9월 이후로 주춤해져 300~800명 선을 유지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일간 확진자가 다시 1000명대로 급증하면서 3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한빛 나노 메디컬

2295-5259, 4898-8908
avenida 20-24 zona 1 , almacen bisu



온열전기매트
1인용 / 2인용

1인용 Q3,000
2인용 Q5,000

온열 전기매트는 저주파와 열을 이용해 치료하는 일종의 의료기기. 온돌은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전해 내려 오는 하나의 고유문화로서, 예나 지금이나 꾸준히 많은 치료에 쓰이고 이에 그치지 않고 현대에는 배게와 메트리스 온돌을 이용한 물품이 많이 출시 되고 있다.
매트의 온도는 최대 70도까지 올라가며 매트로부터 발생되는 주파와 열로 인하여, 잠시만 누워 있으면 온 몸이 편안해 지고 혈액순환이 원할해 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온돌과 열기의 완벽한 조화로 인해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



목·어깨 안마기
가격 : Q1,500

어깨, 목, 허리, 종아리 등등 여러 부위가 뭉쳤을때 통증완화 및 혈액순환에 효과적입니다



손·지압 마사지기

가격 : Q1,500

헨델 손지압 마사지기는 여러모로 손에 피로가 많이 쌓이는 직장인들·컴퓨터 앞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이며 온도와 함께 손 곳곳을 마사지 해 주어 손의 피로를 풀어주고 혈액 순환 및 손저림을 완화시킵니다.

*** 소개 된 모든 기계들은 건강을 강화시키는 "건강 보조기계" 입니다.**



마사지 의자
가격 : Q5,000

*실용적인 디자인을 갖춘 스마트 마사지 의자

매우 실용적인 디자인과 부드러운 매트 소재의 마사지 의자입니다. 다양한 부부분을 세밀하게 마사지가 가능하며, 마사지 하는 강도와 사용자의 키, 체형을 센서를 이용해 인식하여 의자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며, 여러 방향으로 마사지 할 수 있게 디자인 되어 있음.
고성능 엔진을 탑재하여 사용자가 원하면 가로방향이나 세로방향 중 한 방향으로만 마사지 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교정효과를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몸의 뭉친 부분이나 비틀어진 부분 교정이 가능.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몸의 일부분이 균형이 깨져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마사지 의자는 자세교정에 초점을 맞췄다. 사용자에 체형과 키를 인식하기 때문에 척추나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마사지 합니다. 전기세를 최소화하고 실용적이고 심플한 디자인을 채택함. 전력소모를 최소화 하여 일반 가정집에서도 부담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뛰어난 기능과 함께 최고의 내구성을 자랑함.



허리 옥벨트

가격 : Q1,500

옥 벨트는 전원을 연결하여 옥 벨트 전체에 열을 가하여 사람의 복부를 따뜻하게 하고 우리 몸에 유익한 옥돌을 이용하여 열을 발생시켜서 우리 몸에 더욱 유익하고 복부지방 제거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기타품목:
팡팡팡 어깨마사지/사우나/허리 마사지기
복근기계 /마사지 소파/전신혈액순환기
적외선온열기/각종 온돌 메트리스/옥돌 베개 등등

자세한 사항은 상기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차 유행기로 접어들었고, 12월에는 2000~3000명대의 확진자가 거의 매일 쏟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하루 확진자 최다 기록은 지난 17일의 3211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는 전날 36명 늘어 2930명이 됐다. 인공호흡기 치료 등을 받는 중증자는 전날(20일) 기준 593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1차 유행 때처럼 사회·경제 활동을 억제하는 긴급사태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출범한 스가 총리 내각은 감염 확산 방지와 경제 살리기의 양립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여행 지원 사업인 '고투 트래블' 적극 추진하다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 투 트래블은 정부가 국내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여행 금액의 최대 절반까지 지원하는 정책이다. 경제 부흥과 방역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취지에 따라 지난 총 1조3500억엔(약 14조원)의 예산을 들였다. 지난 7월 하순부터 시작돼 내년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이 거세지자 지난 14일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고 투 트래블 사업을 이달 28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美 의회, 9천억달러 경기 부양 법안 마침내 합의

중기 지원·현금지급·실업급여 확대 등 포함
연방 정부 셧다운 앞두고 최종 합의 타결
바이든 정부 출범 전 최악의 상황 피해

미 의회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에 마침내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경기 추락을 방어할 버팀목을 마련하게 됐다. 미 연방정부의 예산안도 함께 합의돼 연방 정부 일시 업무정지(셧다운)도 피할 수 있게 됐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부양 법안 타결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매코널 대표는 "더 많은 도움이 오고 있다. 미국인들은 연말 휴가철에 코로나19와 홀로 싸우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합의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비상 상황에 처한 국가에 긴급 구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여야는 경제 지원을 위한 지원 추가 법안 마련을 시도해왔지만 금액에 대한 시각차가 커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민주당은 주 정부 등 지자체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강조했지만 공화당은 이에 반대해 왔다. 지난 11월 대선 이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 불복에만 주력하는 사이 공화당 측이 소극적으로 나서며 협상은 헛바퀴만 돌았다.

반전은 여야 간 초당파 의원들이 9080억달러 규모의 지원 법안을 제안하면서 부터다. 지난 14일에는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되자 협상은 더욱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결국 민주공화 양당은 서로가 주장해왔던 사안을 포기하면서 접점을 좁히다 최종 타결에 이르렀다. 연방준비제도(Fed)의 긴급 대출 권한 종료 문제가 막판 관건으로 부상했지만, 의회 승인 없는 Fed의 추가 대출을 허용하되 의회가 견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이번 법안은 중소기업의 고용 대책에 투입되는 3000억달러와 실업보험 특혜 연장, 성인과 아동에 대해 600달러의 현금 지급이 핵심이다. 현금 지급은 앞서 1200달러에서 반으로 줄어들었다. 연간 7만5000달러 이상 소득이 있으면 지급액이 줄어든다. 당초 현금 지급은 없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협상 막판 추가됐다.

초당적 합의안에서 현금 지급 안이 빠지자 민주당 진보세력인 버니 샌더스 의원은 현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직접적인 현금 지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주택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강제퇴거 시한도 이달 말에서 한 달 연장된다. 수백만 명이 한겨울에 거리로 쫓겨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항공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원을 위해 150억달러, 보육비 지원에 100억달러가 배정된다. 배긴 확보와 진단 등에도 300억달러가 투입된다.

이번 조치는 하루 20만 명 가까운 코로나19 신규 감염자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 조치로 다시 위기에 처한 미국 경제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 미 의회는 이날 중으로 법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다만 1조4000억달러 규모의 올해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는 하루 지연된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하루짜리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상·하원이 모두 법안을 통과시킨 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워싱턴 포스트(WP)는 이번 부양 법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 여야가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미국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맞서 풀은 재정은 총 4조달러에 이르게 된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20%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사상 최악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평이 나온다.

바이든 당선인으로서도 내년 1월20일 취임 전 최소한의 지원이 시작되며 부담을 덜게 됐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원조 패키지가 불충분하다면서도 "신임 대통령이 병든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한진 인터내셔날



▶미싱 부속 판매 ▶각종 소모품 판매 ▶ 각종 바늘 판매

▶패턴지, 마카지 판매 ▶패턴포마 아크릴

미싱부속 및 모든 소모품 전 지역 배달

36Ave "A" 3-46 Zona7 El Rodeo 카톡ID : monica7890

E-mail : hanjinter1206@hotmail.com , hanjinguate77@gmail.com

이사삼사-영칠사삼, 이사삼사-일팔오구, 오이영팔-영삼이이, 삼영삼육-이삼칠영

이 정도는 되어야 진짜 사재기 호주 화장지 또 동났다

코로나19 제한조치가 발령된 호주 시드니에서 사재기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호주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새로운 규제 조치 발표 후 화장지 사재기가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이날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는 시드니 전역에 10인 초과 모임 금지 등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다. 하루 전 시드니 북부 해변 지역에 봉쇄령을 내린 데 이은 확대 조치다. 이번 조치로 소규모 결혼식이나 종교 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실내 모임이 제한을 받게 됐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드니에서는 2주 넘게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드니 북부 해변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일주일 만에 확진자가 70명 가까이 치솟았다. 베레지클리언 총리는 "보건 전문가들이 바이러스의 감염원이나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제한조치가 발령되자 주민들은 일제히 마트로 향했다. 봉쇄 공황에 빠져 생필품을 쓸어 담았다. 특히 화장지는 모두 동이 났다. 마트마다 텅 빈 화장지 매대에서는 주민 불안이 엿보였다. 일각에서는 지난번과 같은 화장지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번졌다.

호주 화장지 사재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에도 근거 없는 공급난 루머가 돌면서 화장지 대란이 벌어졌다. 화장지를 둘러싼 주민 간 몸싸움에 경찰이 출동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후로 한동안 잠잠했던 사재기 조짐은 새로운 제한조치와 함께 다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쇼핑객에게 책임 의식을 권고하는 한편 생필품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강조했다. 총리는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다. 마트는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주민들을 안심시켰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화장지 품절 사태는 지난 2월 초 번진 음모론에서 시작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최대 화장지 수출국인 중국의 생산라인이 멈출 거라는 말이 돌면서 호주는 물론 싱가포르와 홍콩 등에서 사재기가 이어졌다. 그러자 세계 2위 휴지 생산업체인 중국 빈다가 직접 "생산 부족은 없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호주석탄 금지한 中 광둥성 일대 '대정전'

광저우·등관·선전 등 블랙아웃
수도공급 차질·휴대전화도 불통
中 당국은 '한파' 때문이라지만
濠 석탄, 한때 57%까지 의존
"수입중단 후 연료공급 차질" 분석

최근 호주산 석탄에 대해 사실상 '수입 금지' 방침을 내렸던 중국이

광둥(廣東)성 지역에서 대정전 사태가 발생하는 등 전력난에 고심하고 있다. 중국은 갑작스러운 한파와 공업생산 증가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석탄 금수조치가 화력 발전소 연료 공급에 차질을 줬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21일 홍콩 핑궈르바오(빈果日報), HK01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중국 광둥성 일대 광저우(廣州), 둥관(東莞), 선전(深), 중산(中山), 주하이(珠海) 등지에서 전력과 수도공급이 끊겼다는 SNS 제보가 빗발치고 있다. 홍콩 언론은 SNS 제보를 종합해 정전으로 거리 가로등이 다 꺼졌고, 병원과 양로원, 학교 기숙사 등도 모두 피해를 봤다. 일부 지역에선 기지국 송신소가 기능을 상실해 휴대전화가 터지지 않거나 수도 공급이 끊긴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저장(浙江)성 이우(義烏) 시에서도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가로등이 모두 꺼지는 등 심각한 전력난을 겪었고 장시(江西), 후난(湖南)성 등도 심각한 전력난을 겪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중국의 산업생산이 빠르게 회복한 데다 한파가 겹쳐서 발생한 일로, 내년 춘제(春節)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북부 지역에만 겨울 열수(熱水) 난방을 공급하고 남부는 전기를 이용해 난방한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11월부터 전력 부족을 경고하며 전력 사용을 '전시(戰時) 상황'에 준해 운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심각한 정전 사태를 막지 못했다.

하지만 홍콩 밍바오(明報) 등은 이번 대규모 정전 사태가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조치가 화력발전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전력의 70%를 석탄이나 천연가스 등을 이용한 화력 발전에서 얻는데 석탄의 경우 외국산에 의존한다. 호주산 석탄은 한때 중국 전체 석탄 수입의 57%를 차지하기도 했지만 최근 중국이 이를 점차 줄여왔다. 중국 발개위는 지난 12일 10대 발전기업들과 좌담회를 열고 발전소들에 호주산을 제외한 석탄 수입 확대를 지시했다. 호주가 중국의 코로나19 발원설 조사를 주장했고,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 안보 협력체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에 참여한 데 따른 보복 조치다. 이미 중국은 쇠고기, 보리, 와인 등 호주의 주요 수출품 수입을 중단하거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 중국 전문가는 "석탄 공급은 항구 등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중국과 호주의 관계가 중국 내 석탄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식당직원 위해 팁 600만원 놓고 간 '크리스마스 깜짝 산타'

미국 레스토랑에서 한 손님이 팁(봉사료)으로 5600달러(한화 약 616만원)를 지불한 사연이 화제다.

외신은 지난 12일 오하이오 톨레도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손님이 팁 5600달러를 두고 가 식당 종업원 28명이 각 200달러(한화 약 22만원)씩 나눠 가졌다고 20일(현지 시각) 밝혔다.

가게 주인인 무사 살룩은 "직원들이 크리스마스에 일하지 않고 트리 아래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이 팁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알지도 못하는 28명의 직원들을 위해 팁을 지불한 것은 그저 아름다운 일"이라며 "감사하단 말론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선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난 9월까지 올해에만 10만 개의 음식점이 문을 닫고 그 중 60%는 폐업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 10월 개업한 살룩도 코로나19로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팁은 살룩을 비롯한 종업원 28명에게 '깜짝 선물'이 됐다.

살룩은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이런 친절한 손길은 어떤 어려움에도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는 희망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거액의 팁을 지불한 손님은 익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사막서 사라진 '신비의 기둥' 뉴질랜드에서 찾았다

미국 유타주 사막과 루마니아, 영국 등지에서 목격됐던 정체불명의 금속 기둥이 이번엔 뉴질랜드에서 발견됐다.

뉴질랜드 현지 언론 '뉴스허브'는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치에 있는 '크라이스트처치 어드벤처 파크'에서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모노리스'가 발견됐다고 20일 보도했다.

모노리스는 세계적인 영화 거장 스탠리 큐브릭의 1968년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오는 정체불명의 검은 비석으로, 최근 세계 각지에서 발견된 금속 기둥들과 그 모양이 닮아 비교 대상이 되고 있다.

어드벤처 파크 측은 이날 오후 12시 13분(현지시간)쯤 무렵 높이 3m, 한 면의 너비 40~50㎝ 정도 되는 금속 기둥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파크 측은 사진과 함께 "이게 무엇이고 어디서 왔는지 누가 알고 있나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썼다.

이에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댓글을 통해 "그걸 걷어차서 외계인이 나오는지 보자"고 제안했고 다른 이용자는 "멋지다. 다음엔 어디서 나타날지 정말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 금속 기둥이 지난달 미국 유타주와 이달 초 루마니아에서 발견됐던 것과 그 모양이 비슷하다는 의견들도 많았다.

또 다른 이용자는 "마케팅 술책처럼 보인다"며 이목을 끌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드벤처 파크 행사 담당 매니저인 캠 힐은 금속 기둥이 어떻게 여기 있게 됐는지 알지 못한다며 마케팅 전략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는 보안 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금속 기둥을 세우는 데 직원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생계위기가구 지원사업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인회에서는 그동안 취약계층과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위기 가정이 있습니다. 하여, 한인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1' 생계 위기가구 지원사업" 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알고 계시거나 지원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한인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과테말라에서 한인 공동체로서 우리 모두 다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 나가길 희망 합니다.

가. 사업명:2021' 생계위기가구지원사업
나. 총사업기간: 2020년12월21일~ 2021년1월15일
다. 신청기간: 2020년12월21일~ 2021년1월10일
라. 지원대상:과테말라에거주하는한인생계위기가구
마. 신청물품:기초생계유지물품 과 방역용품
바. 신청방법:
1) 하기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제출
2) 제출처 : 한인회 이메일 haninguate@gmail.com
부회장 5018-1176 총무 3034-8518 홍보 4230-0130

* 상세한 지원물품과 지원대상은 한인회에서 자체심의한 후에 결정 할 예정 입니다.

주 관 사단법인 재 과테말라 한인회

후 원 재외동포재단 / 중남미한인회 총연합회 / 주 과테말라 대한민국 대사관

2021' 생계 위기가구 지원 신청서

다음과 같이 한인회에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신청을 합니다.

지원희망가구			
성 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DPI번호	
연 락 처		직업	
자 택 주 소			
가족구성원			
현재 처하신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와 같이 기재한 사항은 모두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신청날짜		지원자서명	

사단법인 재 과테말라 한인회 귀하

스 포 츠

'PK 실점+자책골' 20년 만에 동시 허용한 토트넘 순식간에 멀어진 선두권

토트넘 홋스퍼가 2연패 수렁에 빠졌다. 특히 레스터 시티와 경기에서 20년 만에 페널티킥 실점과 자책골을 동시에 허용했다.

토트넘 홋스퍼는 20일 오후 11시 15분(한국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1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14라운드에서 레스터 시티에 0-2로 패했다. 이로써 토트넘은 승점 25점으로 5위로 내려앉았다.

이날 토트넘은 4-2-3-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케인이 최전방에 포진했고 손흥민, 은돔벨레, 로 셀소가 그 뒤를 받쳤다. 중원에는 시소코와 호이비에르가 짝을 이뤘고 레길론, 다이어, 알더베이럴트, 오리에가 4백을 구성했다. 골문은 요리스가 지켰다.

이에 맞선 레스터도 4-2-3-1 포메이션을 꺼내 들었다. 바디가 원톱으로 나섰고 반스, 매디슨, 올브라이턴이 2선에 위치했다. 틸레망스와 은디디가 수비적인 역할을 맡았고 카스타뉴, 포파나, 에반스, 저스틴이 4백을 구축했다. 골키퍼 장갑은 슈마이켈이 꼈다.

팽팽한 전반이 이어졌다. 전반 종료 직전 토트넘이 선제골을 내줬다. 오리에가 포파나를 향해 거친 파울을 범했고 비디오판독(VAR) 결과 페널티킥으로 이어졌다. 키커로 나선 바디는 강력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오리에의 판단이 아쉬운 상황이었다.

후반 초반 흐름도 레스터가 가져갔다. 특히 후반 3분 매디슨이 골을 넣었지만 주심은 VAR 판독 후 오프사이드 반칙을 선언했다. 후반 15분 레스터의 추가골이 나왔다. 바디의 헤더가 알더베이럴트를 맞고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다. 결국 양 팀의 경기는 레스터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로써 EPL 개막전 이후 11경기 무패 행진(7승 4무)을 달리며 선두 자리에 올라섰던 토트넘은 최근 내리 2연패를 당하며 순위가 5위까지 하락했다. 리버풀, 레스터로 이어지는 중요한 일정에서 단 한 골에 그친 공격도 아쉬웠지만 2경기 4실점으로 수비가 흔들렸다.

특히 이날 전반 종료 직전 오리에의 무모한 플레이로 페널티킥을 헌납하면서 쉽지 않은 상황에서 후반을 맞이했다. 이에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는 오리에에게 평점 3점을 매기며 "생각 없는 파울로 선제 실점의 빌미가 됐다. 공격에서 전혀 영향력이 없었다"며 박한 평가를 내렸다.

또한 레스터전은 토트넘이 2000년 이후 EPL에서 페널티킥 실점과 자책골을 동시에 허용한 경기였다. 토트넘은 20년 전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에서 1-2로 패한 경험이 있다. 알더베이럴트의 자책골이 온전히 선수의 실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2차례 실책성 플레이가 모두 실점으로 연결됐다.

이로써 12라운드까지 리그 선두를 달리며 조제 무리뉴 감독 2년 차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었던 토트넘은 2연패를 당하며 5위까지 순위가 하락했다. 선두 리버풀과 승점 차는 6점이 됐고 6위 사우샘프턴(승점24)부터 맨체스터 시티(승점23), 첼시(승점22) 등에 거센 추격을 받게 됐다.

토트넘, '손흥민+케인' 의존만 문제 아니다

토트넘홋스퍼가 2020-21시즌 첫 연패에 빠졌다. 손흥민도, 해리 케인도 침묵했다. 토트넘의 우승 도전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진짜 문제는 손흥민과 케인에 대한 의존도 그 이상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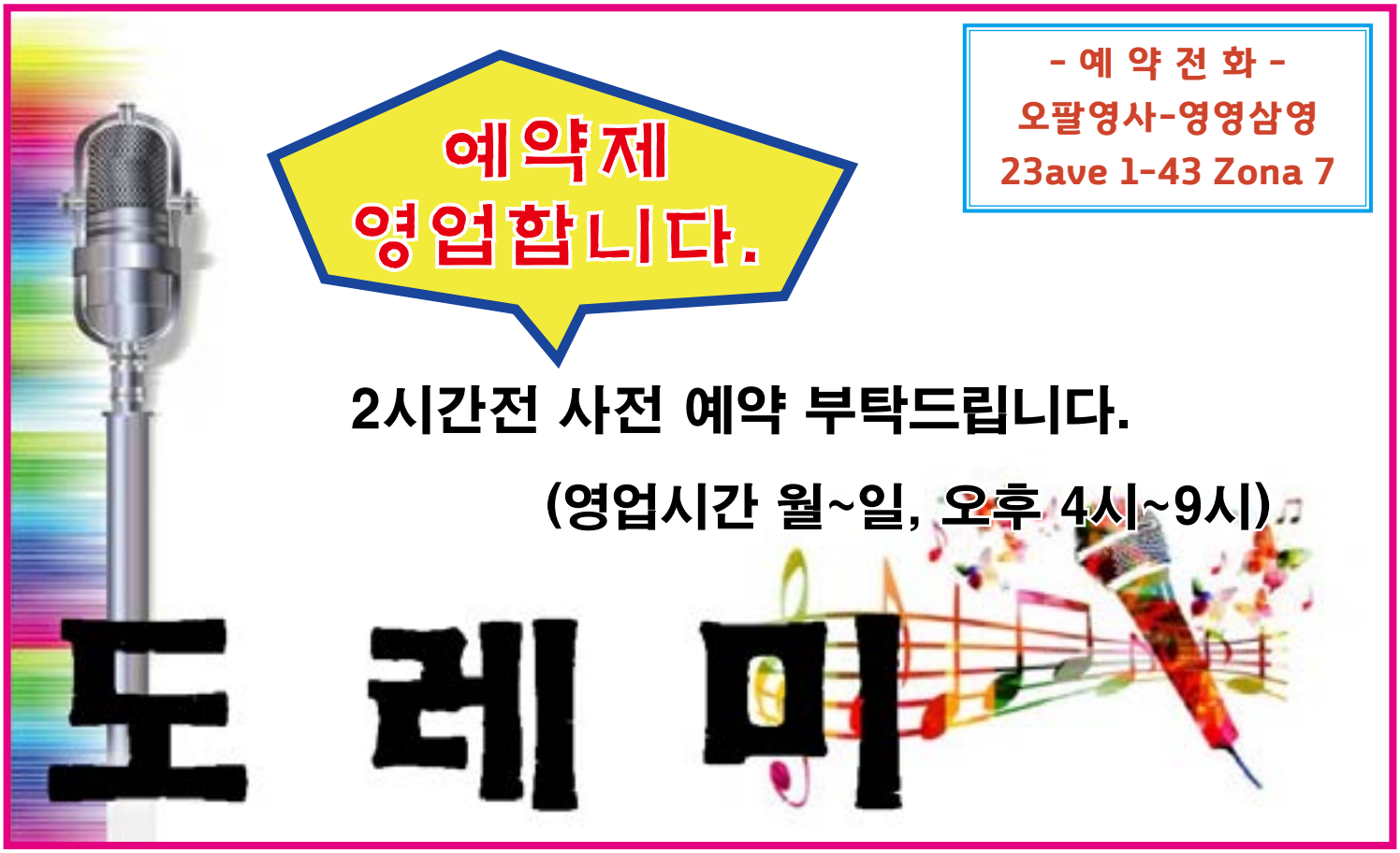
HANA TOUR

☆ 세계 전 지역 항공권 – 멕시코 직항 / 한국 출발 / 과테 출발 / 전세계 출발
☆ 세계 전 지역 패키지 여행 / 단체 패키지 여행
(쿠바 / 코스타리카 / 브라질 / 페루 / 유럽 / 칸쿤
☆ 쿠루즈 여행

이희경(Edita Lee)
502) 3042 6968 / 카카오톡 ID : editaguate
email : hanatourguate@gmail.com
5 Av. 16-35 # 703 Plaza Pacifico Sur, Zona 14

가장 저렴하고 질 좋은 여행~~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토트넘은 20일(한국 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홋스퍼스타디움서 열린 2020-21시즌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에서 레스터시티에 0-2로 패했다. 크리스탈팰리스전부터 3경기 연속 승점을 놓친(1무 2패) 토트넘은 리그 5위로 밀려났다.

토트넘은 12라운드까지만 해도 리그 선두였다. 현존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듀오, 손흥민과 케인을 앞세운 역습 축구는 거칠 것 없었다. 맨체스터유나이티드전 6-1 승리는 대표적이다. 맨체스터시티와 아스널을 상대해서는 클린시트까지 기록하며 승리를 안았다.

'승리 공식'은 손흥민과 케인의 날카로운 마무리와 수비 안정이었다. 손흥민과 케인은 토트넘의 리그 총 득점(25) 중 80%을 양분하고 있다. 특히 손흥민은 유효슈팅 당 득점 73%을 기록하며 승리를 이끄는 선봉에 있다. 바꿔 말하면, 토트넘은 두 선수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지나칠 정도로 높다. 일관성을 가지기 어려운 공격에서 침묵이 이어질 때, 팀도 함께 침체될 수 있다는 의미다. 수비까지 흔들린다면 더더욱 그렇다.

레스터전은 토트넘이 가진 취약성을 보여주는 경기였다. 공격진의 골 결정력이 전과 같지 않고, 후방이 흔들리며 토트넘은 고전했다.

중원 싸움은 그 시작이었다. 피에르-에밀 호이비에르, 무사 시소코의 미드필드 조합은 상대에 주도권을 내준 채 경기를 이어갔다. 압박에 공격권을 쉬이 잃었고, 볼 배급이나 전진은 되지 없었다. 포백은 실수를 연발했다. 세르주 오리에의 실수는 로이 킨이 "터무니 없다"고 할 정도였다. 결국 수비 실수는 실점으로 이어졌다. 선제 실점은 오리에의 실책에 따른 페널티킥으로 허용했고, 추가 실점은 토비 알데르베이럴트의 자책골로 내줬다.

손흥민, 케인 외 해결사는 찾기 어려웠다. 올 시즌 첫 선발 출장한 탕귀 은돔벨레와 지오바니 로 셀소는 깜짝 해결사가 되지 못했다. 둘은 전반 34분까지 슈팅조차 기록하지 못했다. 이대로 중원과 수비에서 파훼법을 노출해 버린다면, 토트넘의 오랜 우승 염원은 올해도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7경기 6승1무 9년 만의 리그 한 경기 최다골..맨유가 살아났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완벽하게 살아났다.

맨유는 21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2020~2021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경기에서 6-2 대승을 거뒀다. 전반 2분 만에 스캇 맥토미니의 선제골로 포문을 연 맨유는 1분 후 맥토미니가 추가골을 터뜨리며 경기를 수월하게 풀어갔다. 전반 20분 브루노 페르난데스, 37분 빅터 린델로프가 연속골을 넣어 사실상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후반에도 공세를 멈추지 않은 맨유는 후반 21분 다니엘 제임스, 25분 페르난데스가 골을 추가했다.

승점 3을 추가한 맨유는 순식간에 선두권으로 도약했다. 26점으로 선두 리버풀(31점), 2위 레스터 시티(27점)을 추격하며 3위에 자리했다.

아직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순위 싸움에서 유리한 입장이다.

무서운 상승세다. 맨유는 최근 프리미어리그 7경기에서 6승1무로 승점 19를 쓸어담았다. 초반 6경기에서 2승1무3패로 흔들렸지만 빠르게 페이스를 회복했다. 최근 7경기에서 19득점으로 경기당 2.7골이라는 압도적인 화력을 뽐내고 있다. 무승부를 거둔 맨체스터 시티전, 1-0으로 승리한 웨스트브로미치 앨비언전을 제외한 나머지 5경기에서 모두 3골 이상 넣었다.

맨유는 지난 2011년8월29일 아스널을 상대로 8-2 승리한 후 약 9년 만에 리그 한 경기 최다골을 기록했다. 그동안 5골을 넣은 적은 있었지만 6골까지 터뜨린 적은 없었다. 지금의 맨유가 얼마나 확연한 상승세를 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이다.

맨유에게는 다음 라운드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맨유는 26일 레스터와 리그에서 맞대결을 벌인다. 두 팀의 승점 차가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맞대결에서 승리하는 팀이 선두권 싸움의 키를 쥐게 된다. 맨유 입장에선 레스터를 잡고 리버풀 추격에 나서는 게 최우선 목표가 될 전망이다.

1주일 사이에 17억원 번 고진영, 통산 상금 500만 달러 돌파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고진영(25)이 불과 1주일 사이에 17억원이 넘는 상금을 벌어들이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상금 500만 달러를 돌파했다.

고진영은 21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 클럽(파72·6천556야드)에서 끝난 LPGA 투어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300만 달러)에서 최종합계 18언더파 270타로 우승했다.

우승 상금 110만 달러(약 12억원)를 받은 고진영은 15일에 끝난 US여자오픈 공동 2위 상금 48만 7천286 달러를 더해 약 1주일 만에 총 158만 7천286달러의 상금 수입을 올렸다. 이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7억 4천만원 정도다.

올해 열린 LPGA 투어 18개 대회 가운데 우승 상금 규모가 가장 큰 대회 1, 2위가 바로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과 US여자오픈이다.

특히 US여자오픈 올해 공동 2위 상금 48만7천 달러는 9월에 끝난 ANA 인스피레이션 우승 상금 46만5천 달러보다도 많은 액수다.

이번 우승으로 고진영은 LPGA 투어 통산 71번째로 상금 500만 달러를 넘어선 선수(560만824 달러)가 됐다.

2017년 10월 인천에서 열린 LPGA 투어 KEB 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우승, 미국 무대로 진출한 고진영은 이후 2018년 1승과 함께 신인상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메이저 2승을 포함해 4승을 쓸어 담으며 상금왕, 올해의 선수, 평균 타수 1위를 휩쓸었다.

2019년 7월부터 세계 랭킹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고진영은 올해 LPGA 투어에 겨우 4개 대회만 뛰고도 상금왕이 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고진영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11월부터 LPGA 투어 대회에 출전, 이번 대회가 시즌 4번째 대회였다.

4개 대회만 뛰고 상금왕이 된 것은 1989년 이후 LPGA 투어 사상 최소 대회 출전 상금왕에 해당한다.

1992년 이후 지난해까지 상금왕 가운데 최소 대회 출전 상금왕은 2003년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의 17개 대회였다.

또 1989년부터 1991년까지도 당시 상금왕들이 최소한 5개 대회 이상 출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투어 초창기인 1950년대 등의 상금왕 기록이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사실상 4개 대회 출전에 상금왕은 투어 전체를 통틀어서도 최소 대회 출전 상금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시아 깡패가 돌아왔다 '카타르의 기적' 울산, ACL서 쓴 반전드라마

호랑이 군단의 억눌렸던 한을 달래주 듯 주장 신진호의 양손으로 들어올려진 '챔피언 트로피'는 어느 때보다 반짝였다. 마침내 우승 한풀이에 성공한 울산 현대 김도훈 감독과 코치진, 선수단은 챔피언 시상대에서 일제히 환호성을 내지르며 꿈같은 밤을 보냈다.

K리그 전통의 명가 울산이 8년 만에 아시아 최강 클럽을 가리는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정상에 올랐다. 울산은 19일(한국시간) 카타르 알와크라 알자누브 스타디움에서 끝난 페르세폴리스(이란)와 2020 ACL 결승전에서 브라질 골잡이 주니오의 멀티골로 2-1 역전승했다. 지난 2012년 이 대회에서 무패(10승2무)로 사상 첫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아시아의 깡패' 수식어가 따른 울산은 8년 만에 또다시 무패(9승1무) 신화를 재연, 통산 두 번째 정상에 올랐다. K리그 팀으로는 2016년 전북 현대 이후 4년 만의 우승이다. 울산은 ACL 우승 상금 400만 달러(44억 원)를 품었다. 앞서 조별리그부터 4강전까지 승리 및 출전 수당으로만 91만 달러를 벌어들인 울산은 ACL에서만 491만 달러(54억 원)의 잭폿을 터뜨렸다.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얻은 셈이다. 또 이 대회 우승으로 내년 2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출전권을 획득, 6개 대륙 클럽대항전 챔피언과 겨루게 됐다.

'카타르의 기적'으로 표현할 만한 완벽한 반전드라마다. 이청용, 윤빛가람, 조현우 등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 싹쓸이 영입으로 올해 15년 만에 K리그1 우승 도전에 나섰던 울산은 시즌 내내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으나 2년 연속으로 라이벌 팀 전북에 역전 우승을 내줬다. 게다가 2년 만에 결승에 오른 대한축구협회(FA)컵 결승에서도 전북에 밀렸다. 김 감독 체제에서 최근 세 시즌간 K리그1(2019 2020)과 FA컵(2018 2020)에서 두 차례씩 모두 2인자에 그치면서 '준산'이라는 오명까지 떠안아야 했다. '김도훈호'의 올 시즌은 모두가 실패로 여겼고,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다가 카타르에서 지난달 재개된 ACL에 대한 기대치도 낮았다. 더구나 주전 골키퍼 조현우가 A매치 차출 기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합류가 무산되는 등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전력 누수도 발생했다.

실제 국내 대회를 마치고 카타르로 날아간 울산은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였다. 하지만 뚜껑이 열리자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웠던 결과가 지속했다. 조별리그(F조) 6경기와 16강~8강~4강~결승까지 10경기에서 23골을 넣고 7실점하는 등 공·수에 걸쳐 완벽한 경기력을 뽐내면서 9승1무 무패를 기록했다. 1무는 ACL이 중단되기 전인 지난 2월 FC도쿄전(1-1 무) 결과다. 카타르에 입성해 치른 9경기에서는 전승을 거뒀다. 또 9경기 모두 다득점(2골 이상) 경기를 펼쳤는데 이 부문 7경기 연속 기록을 세운 건 울산이 처음이다.

무엇이 울산을 춤추게 했을까. 코치진부터 선수단까지 우승 등 결과에 대한 중압감을 내려놓은 게 가장 큰 동력이 됐다. 국내에서는 무조건 우승을 해야 한다는 부담에 사로잡혀 김 감독서부터 주요 승부처에서 소극적인 용병술로 쓴 맛을 봤고, 주력 요원도 제 기량을 펼치지 못했다. 하지만 모든게 '쓴보약'이 돼 ACL에서 힘을 발휘했다. 올해로 울산과 계약이 끝나는 김 감독은 선수들과 모든 짐을 내려놓고 '즐거운 축구'를 표방했다. 3~4일 간격으로 대회가 빡빡하게 진행됐고, 경기장~훈련장~숙소만 오가는 격리 생활로 심신이 지칠 법했으나 내부에서 진솔한 소통이 오가며 하나가 됐다. 여기에 김 감독은 대회 기간 폭넓은 로테이션으로 주전, 교체 멤버를 가리지 않고 전 선수가 일정한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했다. 경기 중 과감한 용병술도 힘을 더했다. 그 결과 결승전 2골을 포함해 7골을 기록한 주니오 뿐 아니라 비욘 존슨도 교체로만 5골을 넣고, 윤빛가람도 4골을 터뜨리는 등 득점 분포가 다양했다. 또 전체 23골 중 절반에 달하는 11골이 승부처인 후반 30분 이후에 나왔을 정도로 '강한 뒷심'도 대회 내내 화젯거리였다.

그리고 이번 대회는 국내 대회 '더블(2관왕)'을 해낸 전북은 물론, FC서울이 조별리그에서 짐을 싸는 등 K리그 팀이 고전하는 인상이 짙었다. 반면 오름세를 탄 울산은 K리그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국가대표의 마음'으로 뛰었다. K리그 팀으로 함께 녹아웃 스테이지에서 살아남은 수원 삼성이 8강에서 비셀 고베(일본)에 져 탈락했지만 불꽃 같은 투혼을 펼친 것도 자극이 됐다. 김 감독은 "(국내 대회 실패 이후) 카타르에 오지 않으려고 했다. 준우승 두 번하고 침체한 분위기였기에 힘들었는데 오기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팬들께 죄송하다. 이번 우승으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타르에서 우리 선수들과 즐겁게 축구했다. 축구가 즐겁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대 이상의 결과물에 김 감독의 거취도 단연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그는 우승 직후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집에 가서 와인 한잔하며 쉬고 싶다"며 이별을 공식화했다. 울산 구단도 20일 '김 감독과 4년간의 동행을 마치고 작별한다'면서 조만간 후임 감독을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K O H
clinica dental

¿ 이빨이 아프십니까 ? ¡ 더 이상 고통은 NO !

En Koh Clínica Dental 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치주질환 치료, 신경치료, 치아 발치



교정, 보철, 미백
성인 및 어린이 스케일링
수술, 임플란트

Dr. Fernando Azmitia
Calzado Roosevelt 35-98 zona 7, Hospital de Día Itzamná, clínica #5
2485-6718 / 2485-6719 / 3148-1105
Búscanos en redes sociales
Facebook: @KohClinicaDental Instagram: @kohclinica

방 송 / 연 예

'날아라 개천용' 배성우 대타는 이정재 아닌 정우성



배우 정우성이 SBS 금토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 음주운전으로 하차한 배성우를 대신해 출연한다.

21일 sbs측에 따르면 드라마 제작진과 배성우 소속사는 오랜 논의 끝에 음주운전으로 하차한 배성우를 대신해 정우성의 출연을 확정짓고 이번부부터 촬영에 돌입한다. 결방 중인 '날아라 개천용'은 내년 1월 초 방송을 재개할 방침이다.

정우성은 17회부터 20회 종영까지 배성우가 맡은 박삼수 캐릭터로 교체 출연한다. 다만 이미 촬영이 진행된 16회까지는 배성우의 출연분량을 최대한 편집해 방송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배성우는 배성우는 지난달 서울 강남경찰서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당시 배성우는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한다"며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면에서 신중하고 조심하며 자숙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에 배성우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 책임을 통감한다며 관계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후 같은 소속사 동료인 배우 이정재가 배성우를 대신해 드라마에 합류를 조율했으나, 이정재는 다른 드라마 일정상 출연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정재가 영화와 드라마 촬영 일정을 다각도로 논의 중이었다. 일정을 정리해보려 했으나 이미 진행하던 드라마 촬영에 차질이 불가피했다"며 "이에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던 정우성이 격리가 해제되자마자 관계자들과 깊이 논의했고 실례가 안 된다면 직접 출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의 '철인왕후' 자체 최고 시청률, 케이블-종편 포함 동시간대 1위

역사왜곡 논란, 원작 작가의 혐한 논란 등에 휩싸인 '철인왕후'가 자체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12월 20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철인왕후'(연출 윤성식, 극본 박계옥 최아일, 제작 STUDIO PLEX, 크레이브웍스) 4회 시청률은 수도권 기준 평균 11.4% 최고 13.0%, 전국 기준 평균 10.4% 최고 11.5%를 기록하며 다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 케이블과 종편을 포함한 동시간대 1위를 지켰다.

tvN 타깃인 남녀 2049 시청률에서도 수도권 기준 평균 6.0% 최고 6.6%, 전국 기준 평균 6.2% 최고 6.8%로 지상파를 포함한 전 채널에서 동시간대 1위를 굳히며 뜨거운 반응을 이어갔다.

특히 전국기준 남자 30대를 제외하고 10대에서 50대에 이르기까지 남녀 전 연령층에서 지상파를 포함한 전 채널에서 동시간대 1위를 유지하며 관심을 모았다.

'암행어사' 코믹 청춘 사극 탄생, 본방 사수 부르는 관전포인트

'암행어사'가 청춘 사극의 탄생을 알린다.

12월 21일 첫 방송되는 KBS 2TV 새 월화드라마 '암행어사: 조선비밀수사단'(이하 암행어사/ 극본 박성훈, 강민선/연출 김정민)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비리에 맞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조선시대 왕실의 비밀수사관 암행어사와 어사단의 통쾌한 코믹 미스터리 수사극이다.

'암행어사'가 안방극장 출격을 코앞에 두고 첫 방송 관전 포인트를 공개했다.

▲ 악을 처벌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조선판 킹스맨 암행어사의 재림! 극 중 홍문관의 관료인 성이겸(김명수 분)은 갑작스럽게 암행어사로 파견돼 여정을 떠나고, 이 과정에서 다모 홍다인(권나라 분)과 성이겸의 몸종 박춘삼(이이경 분)이 어사단의 일원으로 합류해 모험을 함께한다. 패기로 똘똘 뭉친 이들이 임금의 눈과 귀가 되어 백성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을지, 탐관오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과정에서 어떤 우여곡절이 잇따르게 될지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 입체적인 캐릭터의 향연! 인물들의 관계에도 집중 밤만 되면 노름을 일삼는 난봉꾼 관료 성이겸과, 기녀로 위장한 다모 홍다인이 묘한 첫 만남을 통해 인연을 맺는다고 해 호기심을 자극한다. 또한 마냥 철없고 밝아 보이는 성이겸은 의외의 반전 면모와 함께 남들이 모르는 사연까지 숨기고 있다고. 홍다인 역시 비밀을 감춘 인물로, 극이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자 장 면 짬 뽕 볶 음 밥 누릉지탕
간 짜 장 해 물 짬 뽕 짜 장 밥 탕 수 육
사 천 짜 장 홍 합 짬 뽕 짬 뽕 밥 칠리탕수육
삼 선 짜 장 해물불짬뽕 잡 채 밥 반반탕수육
고 추 짜 장 콩나물짬뽕 야 끼 밥 육해공잡탕
쟁 반 짜 장 매운굴짬뽕 잡 탕 밥 잡 탕
유 니 짜 장 옛날백짬뽕 고 기 덮 밥 팔 보 채
삼선간짜장 육해공짬뽕 고 추 덮 밥 양 장 피
해물불짜장 해물어묵짬뽕 삼선볶음밥 유 산 슬
짬 짜 면 삼선야끼우동 새우볶음밥 깐 풍 기
짜 우 면 삼 선 우 동 중화비빔밥 깐 풍 육
뽂 짜 면 기 스 면 마파두부밥 깐 풍 새 우
뽂 짬 면 유 산 슬 밥 군 만 두 고 추 잡 채

한 식 메 뉴

감 자 탕 청 국 장
영 양 탕 비 빔 밥
염 소 탕 회 덮 밥
영 양 수 육 김 치 전 골
염 소 수 육 부 대 찌 개
한 방 닭 생 선 백 반
한 방 백 숙 비 지 찌 개
한방오리탕 왕 돈 까 스
장 모 보 쌈 동 태 찌 개
삼 겹 살 오징어덮밥
해 물 탕 오삼불고기
매 운 탕 야채불고기

신속배달

솔 가

2339-5680, 4444-7914
"무한정 삼겹살" 제공
"염 소 탕" 개시



전개됨에 따라 이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궁금해진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앙숙 케미를 자랑하던 성이겸과 홍다인이 점차 동료로서 가까워지는 모습까지 함께 그려진다고 해 기대를 더한다.



▲ '믿고 보는 배우'들의 총출동! 사극 명장 김정민 감독의 믿고 보는 연출까지 김명수, 권나라, 이이경, 이태환 등 청춘 배우들의 환상 라인업은 방송 전부터 큰 기대가 되고 있다. 이에 더해 명품 조연 배우들의 라인업 또한 주목할 요소다. 안내상, 최종원, 손병호, 채동현, 박주형, 신지훈, 한재석, 신지우, 김주영, 조수민 등이 대거 합류해 폭발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예정이다. 탄탄한 연기 내공과 개성 강한 캐릭터들이 만나 전개에 풍성함을 더한다고 해 본방송을 향한 기다림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 '간택-여인들의 전쟁', '대군-사랑을 그리다', '조선총잡이', '공주의 남자' 등 굵직한 사극을 탄생시켜온 김정민 감독의 연출로 또 하나의 명품 사극이 탄생할 예정이다.

이렇듯 '암행어사'는 명배우들의 다채로운 활약과 예측불허 스토리, 유쾌하고 스릴 넘치는 분위기로 올겨울 안방극장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을 예고하고 있다. 21일 오후 9시 30분 첫방송.

'SBS 연예대상' 주인공은 김종국 그 뒤에 남은 씁쓸함

<2020 SBS 연예대상> 영예의 대상 주인공은 김종국이었다. 지난 19일 열린 <SBS연예대상> 시상식에서 김종국은 <런닝맨>, <미운 우리 새끼> 등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 영예인 대상을 수상했다. 이로서 김종국은 이효리에 이어 가수로선 사상 두번째로 가요대상과 연예대상 두 분야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진기록을 수립하기도 했다.

그동안 김종국은 <런닝맨> 10년 개근 출연과 더불어 <미우새>를 통해 예능인으로서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해왔다. 대상 후보자들 중 <골목식당> 백종원은 수년 째 수상을 고사해왔고 유재석, 신동엽, 이승

기 등이 이미 대상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볼 때 올해 김종국의 수상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이기도 하다.

수상 소감을 통해 김종국은 "예능할 줄 도 모르고 사람들 앞에 설 줄 몰랐던 사람인데 유재석, 강호동이라는 스승을 만나 예능은 제 삶의 전부가 되었다"고 선배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어 "(탁)재훈이 형이 대상 받고 나락으로 떨어졌다. 저는 꾸준히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로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다.

보여주기식 방역 진행?

그런데 이날 시상식은 그 어느 때 이상으로 어수선함과 기괴함이 지배한 행사로 치뤄졌다. 코로나 위기에 따른 대규모 행사 진행에 부정적인 시선이 쏟아지면서 정상 진행이 과연 가능하겠냐라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SBS는 각 프로그램을 빛낸 출연진 상당수가 참석하는 방식을 올해도 유지했다. 대신 투명 플라스틱 벽을 곳곳에 설치, 참석자들을 분리시키고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 지키기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

한명 한명 수상할 때 마다 축하 명목으로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 십수명 이상 무대에 우르르 몰려 나오던 SBS 특유의 진행 방식도 이번 시상식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일반 방역용 마스크가 아닌, 각자의 얼굴이 인쇄된 '페이스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이에 대한 시청자들의 호불호는 극명히 엇갈렸다. 예능 시상식임을 감안하면 나름 재미있었다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기괴하다", "저게 뭐하는 거지?"라는 식의 부정적 시선 역시 적지 않았다.

'거리 두기'를 실천한다는 목적으로 시상자로 나선 연예인들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채 등장했지만 신동엽, 이승기, 차은우 등 3인의 MC를 비롯해서 상을 받으러 나오는 2~3명 단위 연예인들은 이와 무관하게 밀착해서 무대에 올라서다보니 "보여주기식 방역 진행"이라는 지적도 제기 되었다. 방송사로선 대규모 광고 수입 확보 등 놓칠 수 없는 중요 행사임이 분명하지만 이도 저도 아닌 방식으로의 시상식 강행은 웬지 모를 씁쓸함도 안겨주었다.

올해도 어김없는 수십명씩 퍼주기 시상

트로피를 수여하는 방식 역시 논란거리였다. 첫번째 시상 부문인 신인상을 수여할 땐 장도연이 대형 막대 모양 받침대로 차은우, 제시 등에게 전달하다보니 "거리 두기 패러디", "아무리 예능 시상식이라지만 장난하나?" 등의 시청자 반응이 이어졌다. 이후 진행된 시상에선 단상에 놓여진 트로피를 수상자가 직접 챙겨가는 것으로 진행되었지만 그럴바엔 발표에 나선 동료 연예인들이 흰색 면장갑 착용하고 수여해주는게 나아 보였다.

무려 3시간 넘는 장시간 방송이다보니 올해 <SBS연예대상>에서도 지루함이 재미를 강하게 억누르는 시상식의 병폐를 탈피하진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부 수상자들은 시간에 쫓겨 제대로 소감을 다 말하지 못한채 내려오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명예사원상, OTT 부문상, 신스틸러상 등 명칭만으론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성격이 불분명한 부문이 대거 등장했고 이에 따라 40여명 이상의 연예인들이 상을 받아가는 퍼주기식 시상 또한 여전했다. 지난해 시상식에서 '공동 수상', '몰아주기', '나눠 먹기' 등의 병폐를 지적했던 김구라의 일침은 1년이 지난 지금 결국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설민석 측, 고고학자 곽민수 공개 저격에 "드릴 말씀 없다"

스타강사 설민석 측이 고고학자 곽민수의 공개 저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설민석 관계자는 21일 오전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곽민수 한국이집트학 연구소장이 tvN 역사 예능 '설민석의 벌거벗은 세계사'에 대해 "황당 세계사"라고 문제제기한 데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논란에 대해 설민석 측은 제

아람 정육점
CARNICERIA ARAM
신선한 고기로 맛있는 식탁을 꾸미세요!

KN95 마스크 Q10 판매
벌집 삼겹살 개시!!
각종김치, 각종 반찬, 족발
로데오 통합 배달
2호점 : 2221-5364
영업 시간 월~토 / 8:00~7:00
주 일 / 8:00~7:00
전화 : 사오일사- 영팔영이 / 32 AVE. 1-40 Z. 7 UTATLAN 1
위치 : 로데오 2호점 옆 ※ 머릿고기 주문 및 고기 재워 드립니다.

작진과 아직 별다른 얘기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설민석의 벗거벗은 세계사'는 세계사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는 콘셉트로 지난 12일 첫 방송을 시작했다. 첫 방송에서는 나치와 히틀러에 대해 다뤄 뜨거운 화제를 모았으며, 지난 19일 방송에서는 이집트와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한양대에서 문화인류학을 전공하고, 영국 옥스퍼드대와 더럼대에서 이집트학을 전공한 곽민수 소장은 '벌거벗은 세계사' 클레오파트라 편 자문을 맡았으나, 방송이 나간 뒤 오류가 많자 이를 지적했다. 곽 소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관계가 자체가 틀린 게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언급하기가 힘들 지경"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곽 소장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알렉산드로스가 세웠다는 말이나 프톨레마이오스-클레오파트라 같은 이름이 무슨 성이나 칭호라며 '단군'이라는 칭호와 비교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정말 황당한 수준"이라며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VENI VIDI VICI)'를 이집트에서 로마로 돌아가 말했다고 한 것 정도는 그냥 애교 수준"이라고 했다.

곽 소장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프톨레마이오스 2세 때 세워졌다는 것이 정설이며,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는 파르나케스 2세가 이끌던 폰토스 왕국군을 젤라 전투에서 제압한 뒤 로마로 귀국해 거행한 개선식에서 한 말"이라며 "그 이외에도 틀린 내용은 정말 많지만, 많은 숫자만큼 일이 많아질 텐데 그렇게 일을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생략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재미있게 '역사 이야기'를 한다고 사실로 확인된 것과 그냥 풍문으로 떠도는 가십거리를 섞어서 말하는 것에 저는 정말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설민석이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그 문제의식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역사적 사실과 풍문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역사 이야기를 할 때 관심을 끌기에 분명히 좋은 전략이지만, 하고자 하는 것이 그냥 '구라 풀기'가 아니라 '역사 이야기'라면 사실과 풍문을 분명하게 구분해 언급해줘야 한다"며 "게다가 이건 언급되는 사실관계 자체가 수시로 틀렸다"고도 지적했다.

곽 소장은 "제가 자문한 내용은

MEGA IPTV

인터넷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모든 방송을 ...
24시간 원하는 시간에 가장 빠르고 선명하게 시청가능!
서비스 및 문의전화 : 사영이영-사영삼영

1. 한국에서 방송중인 실시간 50개 채널을 동시에 시청
2. 실시간 방송 외 영화, 드라마, 예능/오락, 시사/교양,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유아/어린이 등 원하는 시간에 시청가능
3. 기타 타사 IPTV의 고정관념 버퍼링 및 끈김현상 완벽 보완
4. 타사의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서비스에 문제가 있어 시청하지 못하고 계신 고객분들은 저희 가 방문 후 MEGA IPTV로 바꿔 드리고 동시에 남은 잔여일을 보장 가능
5. 다양한 시청료 패키지
   6개월 / 12개월 + 설치비 무료!! 및 환불보장!!
6. 차별화를 둔 신속한 A/S



업무시간: 8:00 ~ 5:00 (업무시간에 연락주시면 요일 및 방문시간 조정가능)
(전화연결 안될시 문자 및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잘 반영이 안 돼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보지 마시라"고 한 마디로 저격했다.

곽 소장은 앞서 올린 글에서 해당 편의 자문을 맡았다고 밝힌 뒤 "애초에 제작진 측에서 자문자로서 제 이름을 크레딧에 올려줄 수 없다고 해서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었다. 끝까지 따져 결국 크레딧에 제 이름을 올려주기로 하기는 했다"며 "이번 논란 속에서 소위 '설민석 류'라고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조금은 더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한 바 있다. 곽 소장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제작진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선셋→보스턴→LA까지 美비평가상 싹쓸이 한 윤여정 오스카 멀지 않았다

미국 지역 내 비평가협회상을 싹쓸이 중인 배우 윤여정. 그가 한국 배우 최초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오스카) 연기상 후보로 새 역사를 쓸지 기대가 쏠리고 있다.

윤여정은 미국 LA 비평가협회상(Los Angeles Film Critics Association Awards, LAFCA) 여우조연상을 수상, 독립영화 '미나리'(정이삭 감독)를 통해 미국 내 3번째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특히 올해 LA 비평가협회상 여우조연상은 유력한 후보로 '맹크'(데이빗 핀처 감독)의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언급된 바, 할리우드 톱스타 아만다 사이프리드를 제치고 한국의 '국민 배우' 윤여정이 여우조연상을 수상해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LA 비평가협회상은 LA 지역의 영화 비평가들로 구성된 단체 LA 비평가협회가 매년 12월 투표를 통해 그해 우수한 영화를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뉴욕비평가협회, 전미비평가협회, 시카고비평가협회와 더불어 북미 지역 4대 비평가협회상으로 꼽히는 LA 비평가협회는 골든글로브상과 함께 아카데미상의 수상작을 점치는 영향력 있는 비평가상이다.

윤여정에 앞서 영화 '마더'(09, 봉준호 감독)의 김혜자가 한국 배우 최초로 2010년 열린 LA 비평가협회상에서 최고배우상 수상했고 지난해에는 '기생충'(봉준호 감독)의 송강호가 남우조연상의 영예를 안겼다. 올해엔 '미나리'의 윤여정이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며 LA 비평가협회상 2년 연속, 또 3번째 한국 배우의 저력을 과시하게 됐다.

'미나리'는 1980년대 아메리칸드림을 좇아 미 아칸소주(州)의 농장으로 건너간 한인가정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한국계 미국 배우 스티븐 연을 주축으로 한예리, 윤여정, 윌 패튼, 앨런 김, 노엘 케이트 조 등이 출연했고 한국계 미국인 정이삭(리 아이삭 정)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작품이다. 극 중 윤여정은 딸 모니카(한예리)와 사위 제이콥(스티븐 연)을 따라 이민온 엄마이자 손자 데이비드(앨런 김)의 외할머니 순자 역을 맡았다. 미국의 평범한 할머니와 달리 한국 특유의 방식으로 손자를 보살피고 때로는 가족의 연장자로서 딸과 사위를 보듬는 캐릭터로 변신, 순탄치 않았던 삶 속에서도 포기 하지 않았던 희망과 가족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을 담아낸 연기로 호평을 얻었다.

'K-할머니' 윤여정의 명품 열연은 보수적인 할리우드의 장벽도 녹아내리게 만들었다. 윤여정은 선셋 필름 서클이 주최하는 미국 선셋 필름 서클 어워즈 여우조연상, 보스턴 영화비평가 협회가 주최하는 제41회 보스턴 비평가 협회상 여우조연상에 이어 LA 비평가협회상 여우조연상 수상하며 벌써 3개의 트로피를 획득, 오스카 청신호를 켰다.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 뉴욕에서 독립 영화를 대상으로 열리는 제30회 고섬 어워즈에서 최고 여배우상(Best Actress)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고 시카고와 플로리다 비평가협회, 인디애나 영화기자협회상 여우조연상 후보로 지명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여기에 미국 애플TV플러스 드라마 '파친코'(Pachinko)의 주연으로 활약하는 등 미국 내에서 인지도가 급상승 중인 윤여정. 아카데미 시상식 수상 결과를 예측하는 각종 사이트에서 이미 유력한 여우조연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윤여정이 내년 3월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배우상에 이름을 올리며 영화계 또 하나의 역사를 추가할지 주목된다.

송가인, 오늘(21일) 두번째 정규앨범 '몽' 예약 판매 시작

송가인 측은 12월 21일 약 13개월 만에 발매되는 두 번째 정규앨범 '몽'의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는 26일 각종 음원사이트에 공개될 정규 2집은 무려 총 21개의 트랙리스트를 포함, 송가인의 디스코그래피에 또 한 번 큰 획을 그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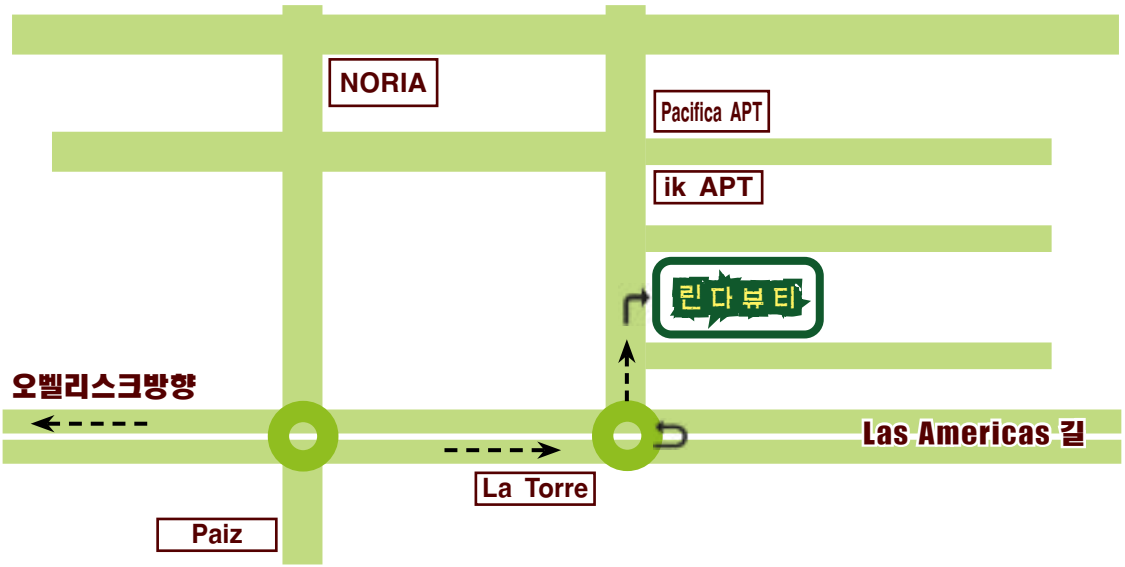
괄목할 만한 점은 특별히 공들인 더블 타이틀 곡. 그 중 하나인 '트로트가 나는 좋아요'는 본래 송가인의 정규 2집을 위해 탄생한 곡이었으나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에게 에너지를 주기 위해 KBS 2TV '트롯 전국체전'에서 선공개됐다. 90년대 레트로풍 댄스곡을 연상시키는 멜로디컬한 선율과 원곡자 송가인의 풍부한 목소리를 담았다. 또한 송가인의 정규 2집은 가수 송가인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의미로 '송가인'이라는 이름을 알린 '한 많은 대동강'부터 '용두산 엘레지'까지 다수의 리바이벌 곡을 포함한다.

이번 앨범 '몽'은 우리의 일상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악몽은 한낱 지나가는 꿈일 뿐, 함께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화서지몽을 꿈꾸자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았다. 무던히 왕성한 활동을 펼쳐온 송가인. 특히나 올해 12월 26일은 그녀에게 의미 있는 날이 된다. 생일, 자서전 '송가인이어라' 발간 그리고 정규2집 '몽' 발매까지 팬들의 사랑에 부응하기 위한 송가인의 열일 행보다.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송가인 정규 2집 '몽'은 21일 오후 2시 각종 온, 오프라인 음반 매장에서 예약 판매가 시작된다. 음원 공개는 26일 오후 6시 모든 음원사이트에 오픈된다.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린 다 뷰 티

!! 장소이전 !!



Zona 14 로 장소 이전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찾아 뵙겠습니다.

새로운 장소 : 16 calle 3-54 Zona14

상담예약 : 삼공삼사 이일삼일 / 16calle 3-54 Zona 14

요전 8:00~오후 9:00 영업 / 매주 화요일 정기휴무 입니다

교 민 장 터

교민장터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없으며
과테말라 거주 한국 교민들을 위한 무료 장터 입니다

가전&가구 중고생활용품 판매
커피그라인더, 에어프라이어,
책상, 책장, 화장대, 커텐 등
(2년 이내 사용) 5987-5252

빈공장 쓰실분 연락주세요

3037-8344

Colonia El Tesoro

양도합니다. 주방용품 일체
인수 가능하신 분 찾습니다.
tel:4634-7640

pueblito 매장
세 놉니다. 싼 월세, 작은 가게.
단일품목에 적합
tel:4676-7100

중고 유아용품 판매 합니다.
침대, 유모차, 식탁, 자전거
장난감 기타 등등....
tel:5206-7614

Balcones de Las Charcas
Z. 11, APT 방3,화장실2
가구 가전포함 $600(관리비
별도) tel:5705-6646

효성 최고급 카펫 판매
(구매후 거의 미사용)
가격 2,000 께찰
tel:3056-3561

아파트 세 놉니다
Zona 14
방 3개,화장실3개,주차장,창고
tel:5512-0116

CONDADO NARANJO
2층집/방3개/식모방/
화장실3/첫입주/새집/세놓음
tel:5693-2803

수출겸 내수 할 수 있는 공장
양도 합니다 /가리따 안 위치
닥트시설 , 기계 , 카메라설치
모든 집기들 ...tel:5727 7922

김치냉장고
삽니다
tel:5703-1734

ZONA 14 새 아파트 세 놉니다
방 3개, 화장실 3개, 주차장,
보데가, 관리비 포함 $1,000
tel: 5312-1159

중식당 팝니다

tel:2339-5680

Balcones de Las Charcas
Z. 11, APT 세놉니다.
방4, 화장실3, 정원, 텃밭 조금
tel:4016-6954

혼다 오디세이 2015년식
아헨시아
흰색 풀 옵션 가격 $17,000
tel:5312-1159

기아 세도나 7인승
2010년식 3800 cc
tel:5727 7922

2016년 혼다 CR-V EXL 4WD
에이전시 구입 28000km
가격 $21,500 네고 가능
tel:5017-0694

Nissan juke (Rojo)
2011년식, 아헨시아아님
(삼공이오-칠오구일)

현대 그랜져 2017년식
무사고, 풀옵션, 검정색
$27,000 네고가능
tel:3146-9528

**교민장터에 기재되는
내용의 사진을 첨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진을 보내주세요**

구 인 / 구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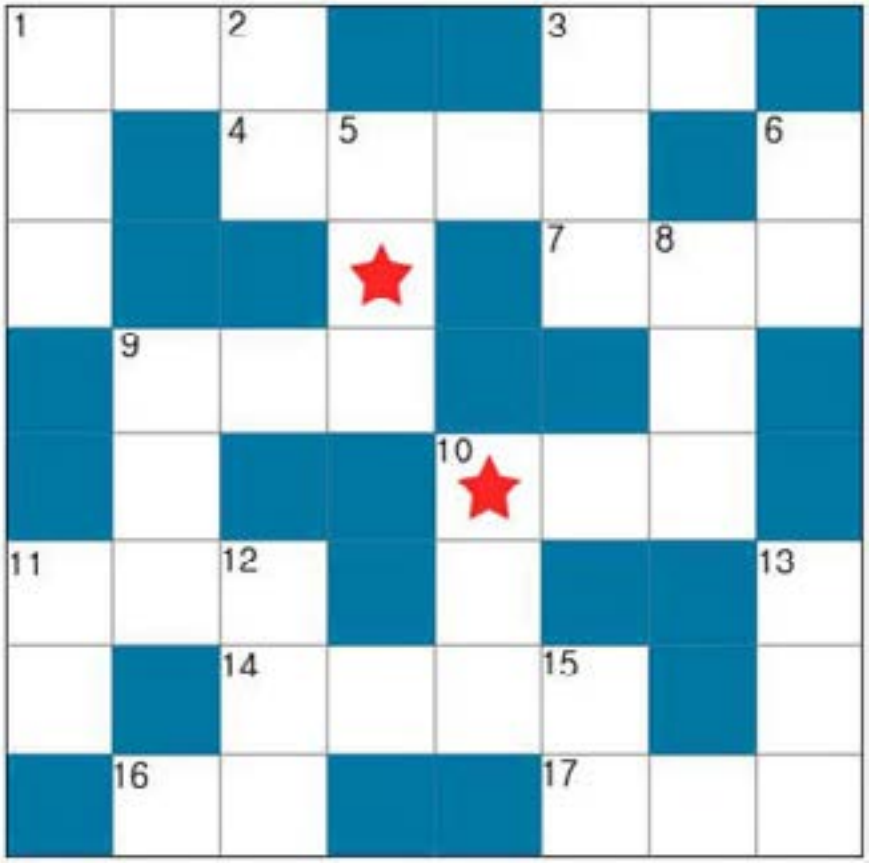
신성통상 니카라구아 소속
이스트모 법인
직원 채용 공지
7페이지참조

SAMS & RUDIA, S.A.
영업부 직원 구합니다.
신입, 경력(주임-대리)
이력서 제출
jay@jnb-tradingglobal.com

C-SITE
채용공고
54페이지 참조

Tel. 2479-1394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날 말 퀴 즈



지난 답



속담 : 장○○옥

■ 가로열쇠

1.은하수를 뜻하는 말
3.공개적인 방법으로 채용함
4.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 <조?모?>
7.판잣집이 모여 있는 매우 가난한 동네
9.비행기를 넣어 두거나 정비하는 건물
10.보자기에 물건을 싸서 꾸린 뭉치
11.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계획이나 구상
14.필요한 물자를 스스로 생산하여 충당함
16.음식을 일정한 방법으로 만듦
17.발을 옮겨서 걷는 동작

■ 세로열쇠

1.눈으로는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생물
2.아내가 남편을 도움
3.공사를 벌이고 있는 현장
5.한꺼번에 겹쳐 치르는 세 가지 고통
6.아버지의 형제
8.재단하다가 남은 천의 조각
9.의식에 앞서 의욕을 북돋워 주기 위하여 하는 말
10.병원균을 몸 안에 지니고 있는 사람
11.방송을 들음
12.아이를 갓 낳은 그 자리
13.불에 탈 때에 나오는 검은 가루
15.각을 뜬 돼지의 발

드 래 곤 라 자

이 영 도

그리곤 그대로 몸을 숙여 돌멩이를 주워들었다. 허리를 돌리자마자 마구 집어던진 돌멩이가 요행히도 선두의 전사의 가슴을 맞췄다.

"커허헉!"

전사는 숨 넘어가는 고함을 지르며 뒤로 나가떨어졌다. 갈빗대 몇 개는 나갔을 거다. 뒤에서 달려오던 나머지 전사들이 기겁하는 모습은 잠시, 그들은 욕짓거리를 뱉으며 쓰러진 전사를 우회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다시 팔을 들어올리며 외쳤다.

"하나 더 있다!"

"으아악!"

전사들은 황급히 머리를 숙였다. 그 순간 나와 네리아, 그리고 운차이는 머리를 숙인 전사들을 향해 육박해 들어갔다. 전사들은 당황하며 다시 몸을 일으켰으나 선수를 제압당해 근근히 막는 것이 고작이었다. 내 바스타드를 막은 전사는 박살나는 자신의 검을 보며 외쳤다.

"이 새끼, 사람이야?"

난 씨익 웃어주려고 했지만 너석은 부러진 칼을 그대로 집어던졌다.

이런, 제엔장! 황급히 몸을 틀었지만 칼은 왼쪽 어깨를 스쳤고 곧 눈앞에 불이 튀는 아픔이 느껴졌다.

"아아악! 후치!"

레니의 비명 소리에 더 놀라버리면서, 난 오른손으로 바스타드를 쥔 다음 인정사정없이 휘둘렀다.

바우우웅! 아쉽게도 전사는 뒤로 피했지만 곧 너석과 그 옆에 있던 다른 전사들의 얼굴이 잿빛이 되었다. 바스타드에서 나는 소리에는 나도 놀랄 지경이었
으니까. 주위의 풀들이 모두 똑같은 높이로 잘려진 것을 보며 전사들은 기겁했다.

와? 바스타드로 풀도 자를 수 있네? 네리아는 그대로 경직된 전사들을 향해 트라이던트를 두 손으로 쥐고 휘둘렀고 전사들은 가슴과 얼굴 등에 상처를 입으며 비명을 토했다. 그리고 운차이가 그들 사이로 스며들었다.

"Peca!"

잠시 전사들의 가운데서 번갯불이 튀고나서, 운차이가 반대편으로 빠져 나오자 대여섯 명의 전사들은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쓰러졌다.

우리 세 명은 다시 레니를 보호하는 위치로 몰려들었다. 네리아가 내게 외쳤다.

"괜찮아?"

"팔은 안 잃어 먹었어요!"

대답은 기운차게 해주었지만 왼쪽 어깨는 불로 지지는 것처럼 아팠다. 몸의 왼쪽 전체가 후들거리며 떨릴 정도였다. 난 이를 악물고 오른손에 쥔 바스타드를 힘있게들어올렸다. 그 때였다. 눈 앞의 연기 속에서 하얀 빛이 뿜어져나왔다.

카카각!

반사적으로 들어올린 바스타드는 빛을 막아내었지만 오른팔은 어깨까지 부러져나가는 기분이 들었다. 크흐헉! 난 간신히 쓰러지지 않은 채 뒤로 여러 걸음 물러났다. 발뒷축이 뭉개진 거 아냐? 팔은 마치 바위를 친 것 처럼 떨려왔다. 이거 사람이야? 왼팔에 이어 오른팔까지 후들거리니 주정뱅이가 따로 없군. 눈을 깜빡여 눈에 고인 눈물을 짜내자 눈 앞에 선자의 모습이 똑똑히 보였다.

밤색 머리, 그리고 드문드문 섞인 새치. 그 아래 딱딱한 얼굴에서는 타오르는 두 눈이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이거 정말 미치겠군! 난 바스타드를 들어 상대의 가슴을 겨냥하며 외쳤다.

"어릴 때 눈빛이 나쁜 소년이라는 말 많이 들었겠군요.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앙금이죠? 하하하!"

할슈타일 후작은 입매를 일그러트리더니 일그러진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드 래 곤 라 자 이 영 도

입술 그대로 말을 꺼내었다.

"버릇없는 꼬마놈. 죽음을 재촉하는군."

후작에게 해 줄 뭔가 더욱 인상적이고 들어서 기분 지저분할 말을 생각하는 사이에, 운차이가 스르르 내 앞으로 다가왔다.

"뒤로 물러나."

내게 말한 거야, 아니면 후작에게 말한 거야? 운차이는 설명하지 않고 롱소드를 들어 후작을 겨냥했다. 후작은 눈을 찌푸리며 말했다.

"부녀 상봉을 막는군…"

부녀 상봉이라고? 고개를 돌리자 하얗게 질려있는 레니의 얼굴이 보였다. 네리아가 레니의 앞을 가로막더니 외쳤다.

"부녀 좋아하시네! 화살을 쏘아대 놓고선 부녀라고?"

후작은 피식 웃었다. 그 때 운차이가 그대로 후작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레니를 데리고 뒤로 물러나. 후치, 네리아. 걸리적거린다."

"우, 운차이?"

"두 번 말하게 하지 말고 물러나."

네리아는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면서 레니의 팔을 잡아끌면서 뒤로 물러났다. 나는 물러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른 일행들이 조금 떨어진 곳에 모여있는 것이 보였다. 아프나이델과 카알이 매직 미사일과 화살을 마구 날리고 엑셀핸드와 샌슨이 비록 덩치는 다르지만 장작 쪼개는 듯한 동작의 유사성에서는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식하게 전사들을 공격해대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제레인트 가기도에 빠진 채로 주위에 방어막을 만들어 일행을 보호하는 모습도 보였다. 샌슨은 전사 하나를 기세좋게 걷어차며 외쳤다.

"후치! 네리아! 이쪽으로 와!"

네리아는 레니의 손을 잡아끌며 저쪽의 일행에게로 달려갔다. 하지만 나는 멈칫했다. 어, 운차이 혼자 후작을? 후작은 OPG를 가졌는데?

"이야아압!"

할슈타일 후작의 고함소리에 놀라 고개를 다시 돌렸다.

카캉! 후작의 검을 막아내는 운차이의 모습이 보였다. 잠깐, 후작의 검을 막아내었다고? 운차이는 후작의 검을 튕겨내고는 칼자루로 후작의 손목을 내리찍었다. 후작은 신음을 토하더니 발을 빼내었다. 그리고 그 때 내가 달려들었다.

"머리 조심!"

그렇게 외치며 다리를 노리고 베어들어갔다. 미안, 후작. 그러나 후작은 검을 아래로 내리쳐 내 바스타드를 땅으로 밀어붙였다.

이런! 검이 묶였다! 순간 옆에서 운차이가 괴성을 지르며 롱소드를 찔렀다. 후작은 내 검을 풀어주며 다시 뒤로 물러났다. 나와 운차이는 나란히 서서 후작을 겨냥했다.

"걸리적 거린다고 했잖아!"

운차이가 쉭쉭거렸다. 내가 뭐라고 대답하려 할 때 후작은 운차이의 검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검을 부러트리지 않다니, 좋은 솜씨군."

운차이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차가운 말투는 변함없었다.

"당신 주의를 끌어본 거야. 할 말이 있거든."

"뭐지?"



'이틀 비 오면, 다음 날은 비가 안 와'

어떤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이틀 비 오면, 다음 날은 비가 안 와.
살면서 사흘 내내 비가 오는 것을 못 봤어."
맞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삶의 짙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입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 인간의 선택과 판단, 예측에는 자기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직관이나 영감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일 비가
오는 것은 오늘 비가 온 것과
별개의 일입니다.

– 반은섭의《인생도 미분이 될까요》중에서 –

* "이틀 비 오면, 다음 날은 비가 안 와."
아닙니다.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지구온난화 탓에
날씨를 종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말씀은 여전히 귀중한 잠언으로
받아들일 만합니다. 기쁘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
말고, 슬프다고 너무 슬퍼 말고, 비가 오든 말든
언제나 희망을 품고 긍정적으로 살라는
뜻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하나 엔지니어링

문의 : 오오이팔 - 이사일삼 / E-mail : hanaeng2004@gmail.com

전기 소방 설비 공사 , 2층 증설 및 인테리어

보일러 설비 배관, 에어 설비 배관

콤퓨레샤 정기 정검(가장 저렴한 소각 보일러)

2020년 12월 21일 [11.7] 월요일

오늘의 운세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받아들이고 그 일을 즐겨라. 맘에 안든다고 버티면 손해. 72년생 벼르던 일 낭패하기 쉬우니 일단 후퇴. 60년생 새로운 사업구상의 적기다. 신중하게 움직이되 쇠뿔은 단김에 빼야한다. 욕심을 내지 말고 자기의 능력을 생각하고 분수에 맞게 결정하라.



잡념이 많으면 일이 성사될리 없다. 73년생 남의 일에 간섭하면 구설수. 일단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이성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세심한 배려다. 61년생 얼마전까지 골치썩이던 일이 술술 잘 풀려 신기할 정도. 찬스를 잘 살리면 대박이 예상된다. 대인의 마음으로 전진하라



과거는 과거이다. 떠나가는 버스의 뒷모습을 언제까지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을 때다. 74년생 돌부리를 차면 제 발만 아프다. 화가 나도 참는게 상책. 62년생 소신껏 결정하라. 이번 일은 주변의 얘기 무시해도 좋다. 50년생 여러 사람의 힘을 합해 이룬다.



매우 힘든 시기. 그러나 조금만 더 참고 애써라.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 미혼일 경우 데이트 신청하면 성사된다. 작은 선물로 상대를 감동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 63년생 어려운 일을 당하나 도움을 주는 친구 있어 마음이 놓인다. 51년생 자금융통 어려워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좋은 사람에 의지하여 위기에서 벗어난다. 76년생 책상에 앉아 허공을 보는 격.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64년생 부동산 구입은 며칠 뒤로 미뤄라. 며칠 사이에적잖은 돈을 아낄 수 있다. 52년생 실력자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구하라. 친,인척 집 방문시 선물을 빼먹지 말라.



절실히 때를 기다리던 당신에게 기쁨이 온다. 감격적인 순간. 77년생 새로운 친구와 사귀게 된다. 귀중한 사람이니 내 편을 만들어야한다. 65년생 음주와 가무가 있는날. 유쾌한 자리에 참석하게 된다. 53년생 먼 곳에서기다리던 소식 온다. 평온한 하루.



78년생 이성관계가 어렵게 진행되어 마음이 괴로울 듯. 66년생 송사에 휘말릴 듯 하니 문서 작성을 꼼꼼히 하라. 54년생 감언이설에 넘어가면 재물을 잃는다. 믿지 못할 사람이 가까이에 있다. 42년생 하는 일이 어려운 고비를 넘긴다. 앞으로는 탄탄대로.



정신통일처럼 큰 에너지는 없다. 어려운 일도 집중하면 풀린다. 학생은 공부가 살 길임을 명심하라. 67년생 만사가 귀찮다. 잠시 휴식을 취하라. 55년생 여행이나 출장길에서 좋은 일이 생긴다. 인생의 단맛을 느낀다. 43년생 큰일을 앞두고 사람 농사 지을 때다.



어떤 일이든 결단을 내릴 시기.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라. 68년생 들뜬 마음.업무에 혼란이 야기된다. 빨리 매듭을 풀지 않으면 비명지를 일 생긴다.56년생 만사 형통. 오늘은 좋은 날. 승진운 있다. 반복되는 일상으로 인해 회의를 느낄 수도 있다.



유비무환을 잊지 말라. 편안할때 비축해둬야 나중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69년생 어려운 시기 지나고 매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 57년생 회사에서의 일은 잘 되나 집안에는 다툼이 있어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45년생재물과 관련된 일 조심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는 것과 같다. 70년생 보증, 담보 조심하라. 가까운 친척이라도 거절해라.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라. 58년생 매사에 신중하지 않으면 재물 잃고 건강까지 잃을 수 있다. 지금은 현상유지가 최우선. 투자는 금물이다.



참아낼 수 있는 어려움이다. 엄살떨지 말라.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으니 희망을 갖고. 71년생 열심히 노력한 결과 어려운 일이 잘 풀려 재물이 생긴다. 59년생 그동안의 투자가 성과를 내 재물이 들어온다. 47년생 여유를 갖고 모든 일에 임하라.

하나 엔지니어링

문의 : 오오이팔 - 이사일삼 / E-mail : hanaeng2004@gmail.com

경원 공식 에이전시에서 알려드립니다

경원 콤퓨레셔 오일이 12월 20일 부로
고온에 더 강하고 윤활 작용이 뛰어난 오일로 변경되었으며
명칭은 AIRLUBE SUPER입니다.
특별 가격은 US$ 150.^{00} 이며 공식 에이전시에서
구매하실수 있으며 공식에이전시가 아닌곳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정품이 아닐수 있으니 구매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유 머

천당과 지옥

당연히 지옥으로 갈 거라 생각한 그의 앞에 나타난 베드로가

" 지옥으로 갈 건가, 천국으로 갈 건가?" 하고 묻는 거였다...

곰곰히 생각한 그는 이왕 얻은 기회를 잘 활용하고자

"죄송하지만 베드로님. 천국과 지옥을 잠시 구경 (관광)하고 결정하면 안되겠습니까?"하고 물었다...

베드로는 흔쾌이 승낙했다..

지옥에 갔더니 술집도 보이고 재미있게 놀음도 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았다. ...거기에 예쁜 여자까지..

천국에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함께 성경애기를 하며 찬양만 하는게 아닌가..

그 주정뱅이는 천국이 너무 따분하고 재미없어 보였다... 그 대신 술과 예쁜 여자들이 많은 지옥에 더 구미가 당겼다..

"베드로님,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후회는 하지 않겠지?"

"물론이지요..."

지옥으로 간 주정뱅이는 깊은 굴속으로 끌려갔고 용광로처럼 뜨거운 곳에 던져졌다..

"아까 그곳과 틀리지 않습니까..."라며 항의했다...

이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 이 사람아, 아까 건 관광비자였고, 지금은 영주권이야 "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과테말라 한인 교회 연합

다메섹선교교회



담임목사 김기택

ZOOM을 통한 LIVE영상예배.
금요성경공부 : 오후 8시
주일 낮 예배 : 오전 10시40분
ZOOM회의(예배) 번호
⇒ 911 918 9999
비밀번호 : 046322
21 Calle 13-15 Z.11 Col.Mariscal
전화: 2473-3968, 5511-6525

평강교회



담임목사 변홍근

주일낮 1부 예배 : 오전 9시
주일낮 2부 예배 : 오전 11시
주일 아동 예배 :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수요기도회: 오후 8 시
금요 중보 기도회 : 오후 8 시
주소: 11ave.29-46 Z.12 El Bosque
전화 : 2476-1313 5202-5531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과테말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이정로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인터넷 동영상
예배 사이트 →

주소 : 17Ave 28-92 Zona 12
교회 : 2293-2100

대한예수교장로회 과테말라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상돈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인터넷 동영상
예배 사이트 →

주소: 37ave. 3-36 Z.7 Col.el rodeo
교회: 2433-4533/담임목사:4768-5454

제일교회



담임목사 이병성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인터넷 동영상
예배 사이트 →

주소 : 0 Ave. 9-41 Z.9
전화 : 2362-8565, 5176-3677

예배동영상 시청을 QR 코드로... QR사용법

휴대폰의 카메라를 QR 코드에 갖다 댄다
카메라 화면에 메세지가 보이면 클릭한다
만약 카메라 화면에 메세지가 보이지 않으면
QR코드스캔앱을 다운받아 설치한다
QR 코드스캔앱을 실행해 화면에 갖다 댄 후
메세지가 나오면 클릭!

대한예수교장로회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박필종

BIBLE TIME과 함께
성경 읽고, 말씀 묵상

주일예배 : 주일오전 10시30분(방송예배)
새벽예배 : 월-토 6:00(방송예배)
주소 : 18Calle 5-92 Col.MARISCAL Z.11
교회 : 2474-4551 / 목사 : 5705-6646

예배 안내(유투브에서 검색하세요.)

주일예배 : 방송시간 오전 10:30
희망찬 새벽예배(월-토) : 방송시간 6:00

과테말라
선한목자교회

더욱 힘써 예배 합시다!!

만 화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전기요금 개편의 명암



2016년 여름, 폭염으로 전기사용량이 크게 늘자 정부는 '개문냉방' 단속에 나섰다. 문을 열어 놓은 채 에어컨을 틀고 장사하는 가게들을 적발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 것이다. 그러나 단속할 때뿐 개문냉방은 계속됐다. 정부가 자영업자의 냉방 온도까지 간섭한다는 논란도 일으켰다. 가격이라는 시장원리를 이용하지 않고 단속만으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은 전기요금이 싼 편이다. 지난해 국제에너지기구(IEA) 발표에 따르면 1인당 전기요금이 세계 주요 28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저렴했다. 일본의 전기료는 한국의 2배이고 전기 생산용 석유가 생산되는 미국도 한국보다 비싸다. 질 좋은 전기를 값싸게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문제도 있다. 에너지 소비 왜곡으로 인해 국가적 세계적으로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이 심해지는 것이다.

▷1차 에너지원인 석유나 석탄으로 난방을 하면 에너지 전환 손실률이 10~20%다. 석유나 석탄으로 만든 전기로 난방을 하면 손실률이 60%로 늘어난다. 그런데 한국 농가는 석유 대신 전기보일러로 바나나를 키운다. 전기 값이 석유 값보다 싸기 때문이다. 농가는 좋을지 모르지만 국가자원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엄청난 온실가스가 발생해 기후변화를 촉진한다. 2차 에너지원인 전기를 펑펑 써서는 안 되는 이유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7년 만에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음 달부터 석유 석탄 등 연료 가격의 변동을 전기료에 반영하고, 기후·환경 비용을 분리 고지하는 내용이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국제유가가 싼 지금은 전기요금이 내리겠지만 유가가 오르면 전기요금도 올라갈 것이다. 정부는 상한선을 둬 4인 가구 평균 350kWh일 때 월 최대 1750원 이상 오르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1, 2인 가구의 전기요금도 오른다. 월 소비량이 200kWh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필수사용공제라고 해서 4000원을 깎아줬는데 그 제도를 폐지했다. 전기를 적게 쓰는 취약계층을 위해 만든 제도인데 오히려 중상위 계층에 혜택이 많이 간다는 이유에서다.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들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산업면에서도 에너지를 많이 쓰는 국가다. 물건 1개를 만들 때 선진국들은 1의 에너지를 쓴다면 한국은 4, 5배의 에너지를 쓴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생산비가 높아져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정부와 한전은 당장 기업들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에너지 절감 기술을 개발하는 데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스 도 쿠

난 이 도 : 쉬운 단계

8				4				2
4								5
		1	3		5	9		
2		5	9		3	7		4
	1						5	
9		7	1		2	6		8
		4	5		7	8		
5								1
7				9				6

난 이 도 : 어려운 단계

		1	2					9
7					6			
		6	1				7	
4	2		7					1
		8			9	2		
6							8	4
	4				7	1		
			9					7
5					8	3		

오늘의 스도쿠 정 답

쉬운단계정답

6	2	5	1	9	4	8	3	7
1	7	4	8	3	6	2	9	5
3	9	8	7	2	5	4	6	1
8	3	6	2	5	1	7	4	9
9	5	2	4	7	8	6	1	3
4	1	7	3	6	9	5	8	2
7	4	9	5	8	3	1	2	6
5	8	3	9	1	2	6	7	4
2	6	1	6	4	7	3	5	8

어려운단계정답

5	1	7	4	2	8	3	9	6
8	6	3	9	5	1	4	2	7
9	4	2	3	6	7	1	5	8
6	3	9	5	1	2	7	8	4
1	7	8	6	4	9	2	3	5
4	2	5	7	8	3	9	6	1
2	5	6	1	9	4	8	7	3
7	9	4	8	3	6	5	1	2
3	8	1	2	7	5	6	4	9



Tel. 2479-1394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보 물 창 고

단체 김 주문 받습니다.



12월 20일
한국 냉동
컨테이너입하

메밀전병만두. 김말이. 떡갈비
고메함박스테이크. 돈카츠. 핫도그
비비고수제고기만두. 군만두
군교자새우만두. 찰보리감자만두
병천고추순대. 너른골찰순대
병천찰순대. 고메중화짬뽕
동태전. 떡갈비. 김말이
훨터치 소시지. 새참바
양념깻잎무침. 고들빼기무침
무말랭이무침. 양념고추무침
더덕무침.마늘쫑무침. 콩자반
꼴뚜기젓. 낙지젓
오징어젓. 새우젓





과자 10봉지
Q120



12월 8일 한국컨테이너 입하

한국 내수용 초코파이. 비타500. 신라면선물용
서울 흰우유. 엔요. 베지밀 A

삼육검은콩두유. 메론우유.딸기우유.바나나우유(24팩).고려인삼주
선지해장국.비비고순댓국.비비고추어탕.비비고쇠고기장터국.비비고알탕
롱다리.한입꼬마약과.추억의꽈베기.천하장사소세지.뽀로로소세지.쫀디기
육포.표고버섯분말.멸치분말.께찰빵믹스가루.미니도너츠가루

배달 직통 번호 5318-0169 카톡 주문 가능

배달 직통 전화번호 : 2473-8255, 2473-8222, 5318-0169
Anillo Periferico 22-29 Z.11 C.C San Jorge Local 14
(컴퓨터 판매 및 수리. 한글자판 및 스티커. 단체 김 주문)

MEGA MART

로데오

한국택배전문 2433
통합배달전문 9015



12월 5일, 7일, 10일 3컨테이너 동시 입하

연말 물건 가득 들어왔습니다

식품 20프로
잡화 30프로
생필품 30프로
화장품 30프로

2020 마지막 연말 대할인

최대 70프로 사장님이 미쳤어요

냄비 후라이팬 40프로
그릇류, 식기 30프로
문구 의류 속옷 70프로

☞현금만 할인됩니다 12.17 단2주간 12.31 ☞특정품목 할인 안됩니다

로테오 파트너 씨제이 제일제당에서 크게 쏩니다

로테오에서 600원 이상 구매시
비비고 포기김치 1킬로
공짜 !!(못먹으면 후회막심)



선물용 과일, 야채등 현지상품은 행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Warning! 경고! 중독의 원인 로테오 택배!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다음 택배마감은
1월초 냉동(날짜미정)입니다

본점 2433-9015
2호점 2221-5364
3호점 2367-0137

통합협력업체

아람정육점 4514-0802
마장동 3258-8320
밀베이커리 4545-4504
순풍식당 2508-5635
향이 4576-5786
진미식당 5550-1317
본가 2445-6050

통합 배달 전문

한국 택배 전문